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초월적 원리로서의 자연의 합목적성
: 『판단력 비판』 서론 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황현동

초월적 원리로서의 합목적성
: 『판단력 비판』 서론 연구

지도교수 이창환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황현동

황현동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원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원 _____ (인)

국문 초록

칸트는 『판단력 비판』 서론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작동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이 초월적 원리, 즉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라고 주장한다. 보통 경험적 지식은 자연현상들의 반복성에 기초해 획득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칸트에 의하면, 우리는 자연이 그런 반복성 이상의 체계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경험적 지식도 얻을 수 없다. 즉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자연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겠다는 우리 ‘인식능력의 목적’에 부합하리라는 가정 아래서만 형성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본고의 목표는 이 같은 주장의 의미를 규명하고, 그것이 상당수 연구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이는 데 있다.

상기의 목표에 따라 본고에서는 칸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 첫째,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그것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이라는 판단 주체의 확신을 동반하며, 그런 만큼 자신의 판단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인지를 합리적으로 검증하려는 판단 주체의 노력을 요구한다. 둘째,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검증의 절차로서 수행되는 사고 활동이 바로 개념, 판단, 추론 등의 논리적 표상들을 만드는 여러 층위의 논리적 ‘반성’ 들인데, 각종의 반성 활동들은 궁극적으로는 판단들 전체를 비교해 체계화하는 반성의 활동에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판단 주체는 경험적 지식을 위한 대상 세계인 자연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신의 인식적 목적에 부합하게끔 조직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한에서만 체계화의 반성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자연을 체계적 이해를 불허하는 무질서의 집합으로 여기는 한에서는, 판단들의 체계를 자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자의적 구조물로, 또 그 같은 체계를 만들기 위한 반성 활동을 무가치한 작업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이 판단 주체 자신의 인식적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리라는 가정 아래서만 일체의 반성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연의 합목적성은 우리의 반성 활동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내재적 규범이다.

요컨대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판단 주체가 자신의 판단을 합리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수행되는 사고 활동인 각종의 반성을 토대로 형성되며, 자연의 합목적성의 가정은 이런 반성 일반의 내재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 곧 초월적 원리이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 서론에서 자연의 합목적성이 초월적 원리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결국 그것이 개인의 기질이나 습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도입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개념, 판단, 추론, 체계라는 논리적 형식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한에서는 반드시 자연을 하나의 체계로 가정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같은 가정은 우리의 논리적 사고 능력 자체에 근거하는 합리적 믿음임을 입증하는 것이 제3비판 서론의 기획인 것이다.

주요어 : 칸트, 판단력 비판, 반성, 자연의 합목적성, 경험적 지식, 초월적 원리

학번 : 2010 - 22969

목차

국문초록

서론 -----	1
I. 경험적 지식의 성격 — 객관적 타당성, 검증 절차의 요구 -----	7
II.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서 ‘반성’의 역할 — 합리적 검증의 절차 -----	18
1. 표층적 반성의 목표: 대상에서 개념으로, 개념에서 판단 으로 -----	18
2. 심층적 반성, 혹은 이성적 전망에서의 반성: 판단들의 체계 -----	28
III. 초월적-규제적 원리로서의 자연의 합목적성 ----	37
1. 자연의 합법칙성 — 대상 세계의 ‘구성’ 원리 ---	38
2. 자연의 합목적성 — 반성 일반의 내재적 ‘규범’ --	48
결론 -----	59
참고문헌 -----	62
Abstract -----	61

서론

칸트는 『판단력 비판』¹⁾ 서론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작동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이 초월적 원리, 즉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라고 주장한다. 보통 경험적 지식은 자연현상들의 반복성에 기초해 획득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칸트에 의하면, 우리는 자연이 그런 반복성 이상의 체계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경험적 지식도 얻을 수 없다. 즉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자연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겠다는 우리 인식능력의 ‘목적’에 부합하리라는 가정 아래 성립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본고의 목표는 이 같은 주장의 의미를 규명하고, 그것이 상당수 연구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이는 데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칸트는 『판단력 비판』의 서론에서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아래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사고하는 능력”(V179)인 판단력에는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먼저 규정적 판단력이란 이미 주어져 있는 보편자를 사용해 다양한 특수자들을 규정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이것의 대표적 활동으로는 인간 지성의 선형적 개념들인 범주들을 감각적 대상들에 적용해 개별적인 경험적 지식을 만드는 일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한다’라는 경험적 지식은 짠 음식과 갈증에 각각 원인의 범주와 결과의 범주를 적용할 때 성립하는, 규정적 판단력의 산물이다.

이에 반해 반성적 판단력은 다양한 특수자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1) 『판단력 비판』 인용은 (V 쪽수)로 표기한다. 따로 출판된 첫 번째 서론의 인용은 (XX 쪽수)로 표기한다(V와 XX는 전집 권수). 또 『순수 이성 비판』 인용은 초판의 경우 (A 쪽수), 재판의 경우 (B 쪽수)로 표기한다. 번역은 주로 백종현 역(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순수 이성 비판 1.2』(아카넷, 2006);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판단력 비판』(아카넷, 2009))을 따랐으나 필요할 경우 수정하였다.

통일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새로운 보편자를 찾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 같은 반성적 판단력의 활동에는 특수한 자연법칙들의 뿌리가 되는 더 보편적인 자연법칙을 탐구하는 일, 동식물의 종속강목을 분류하는 일, 사 고의 기초 단위인 각종 개념들을 상호 연관 짓는 일 등이 포함된다. 그 리고 이런 맥락에서, 반성적 판단력은 규정적 판단력에 의해 만들어진 단편적 지식들을 조직화해 지식의 체계를 만들고 그를 통해 자연을 종합 적으로 이해하려는 능력으로 해석된다. 제3비판의 서론은 그런 반성적 판단력의 역할과 적용 범위를 소개하고 이어 그것이 어떤 원리 아래서 작동하는 것인지를 해명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그렇다면 칸트가 제시하는바 반성적 판단력의 작동 원리는 대체 무엇일 까? 칸트는 체계적 지식의 힘으로 자연을 이해하려는 능력인 반성적 판 단력과 그 이해의 대상인 자연 간의 괴리를 실마리 삼아 반성적 판단력 의 원리를 도출한다. 그 괴리는 자연이 어느 정도의 일반성 내지 반복성 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지극히 이질적인 현상들로 이루어 진 “조야하고 혼란스런 집합”(XX209)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데서 발생한다. 자연의 시공간적 질서 속에서는 수 없이 많은 이종(異種)의 현 상들이 펼쳐지며, 그 점에서 자연은 분명 그것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추 구하는 반성적 판단력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눈에 비치는 대로 영성한 집합을 자연의 본모습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자연을 이해하겠다는 것은 결국 인간 의 자의적 욕망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경우 반성 적 판단력의 사용을 헛된 일로 간주하면서 그것의 사용을 단념하게 될 것이다. 지식의 가치는 그것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만일 체계적 이해를 불허하는 혼잡한 집합이 자연의 본모습이라면, 반성적 판단력이 만든 지식의 체계를 가치 있는 지적 산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에 의하면, 반성적 판단력의 작동을 위해서는 자연의 본모 습은 지식의 체계를 통해 적절히 설명될 수 있는 “하나의 체 계”(XX209)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말했듯 자연은 지극히 다양한 현상들의 혼란스러운 집합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지식의 체계를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제공하는 지적 산물로서 신뢰하여 추구하려면, 다시 말해 반성적 판단력을 사용하려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가정이 필요하다. 즉 우리는 자연이 그토록 혼잡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의 감각적 한계 때문일 뿐 그 속에는 체계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이성적 질서가 내장되어 있으리라고 상정하는 한에서만 반성적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의 반성적 판단력은 우리가 자연의 본모습을 반성적 판단력의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 전체로 간주하는 한에서만, 또 그런 의미에서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원리에 따라서만 작동 가능하다.

반성적 판단력이라는 지적 능력과 그것의 작동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에 관한 칸트의 주장은 아주 넓게 보자면 자연, 인간 이성, 그리고 학문적 체계에 대한 주지의 계몽주의적 관점과 궤를 함께 한다. 계몽주의자들은 자연이 인간 이성에 의해 포착될 수 있는 체계적 질서를 갖추고 있으리라는 믿음 아래 자연을 탐구함으로써 학문 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었다. 『판단력 비판』 서론의 목표는 한편으로 그런 계몽주의적 믿음의 근거와 정당성을 밝혀 일단의 회의주의에 응수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의 한계를 명확히 지정하여 자연에 대한 지나친 형이상학적 접근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칸트가 펼치는 주장의 대의(大意)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몇몇 난점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칸트가 이보다 한층 급진적인 주장들로까지 나아간다는 데서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자연의 합목적성이 이른바 “초월적 원리”라는 주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선 이 주장의 의미부터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칸트가 정의하는바 초월적 원리란 우리의 경험, 즉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라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²⁾ 가령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범주 적용의 원리로 제시하는 “자연의 합법칙성”이 그에 해당한다. 우리의 경험적 지식이 감각적 대상들에 범주들을 적용함으로써

2) “날말 ‘초월적’은 [...] 모든 경험을 넘어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에 선행하면서도(즉 선행적이면서도), 오직 경험 인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만 쓰이도록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형이상학 서설, IV, 373.

성립하는 것이라면, 그런 범주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임에 틀림없다. 이제 초월적 원리의 이 같은 정의를 고려하면 자연의 합목적성이 초월적 원리라는 칸트의 주장은 그것이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의 합목적성은 이미 산출되어 있는 개별의 경험적 지식들을 체계화하는 데만 필요한 원리가 아니라 경험적 지식들의 개별적 산출 자체에도 필요한 원리라는 것이 칸트의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칸트의 이런 주장은 상당수 연구자들로부터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평을 받는다.³⁾ 그들은 경험적 지식과 학문적 지식의 엄격한 구분을 주된 근거로 칸트의 주장을 비판한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는 감각적 대상들을 비교해 개념을 만드는 작업 및 그 대상들에 각종 범주를 적용하는 작업 같은 기초적 사고 활동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얻는다. 즉 자연 법칙들의 계통을 세우는 일이나 개념들을 상호 연관 짓는 일 등의 체계화 작업은 주어진 경험적 지식을 학문적 수준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데나 요구되는 고차의 부가적 사고 활동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런 체계화 활동의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은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 곧 초월적 원리일 수 없다. 그리하여 대표적으로 가이어(P. Guyer)는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는 “경험적 개념들 사이에서 그 이상의 조직화된 층위를 발견하고자” 할 때는 필요할지 몰라도, “개별적 지각들을 하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데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상의 의미에서 자연의 합목적성은 “결코 어떠한 경험의 필연적 조건”도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⁴⁾

본고는 연구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합목적성이 초월적 원리라는 칸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본고의 목표는 자연을 단일의 체계로 가정하는 일이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다. 앞서

3) 특히 Guyer, Paul, *Kant and the Claims of Tas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Horstamn, Rolf-Peter, “Why Must There Be a Transcendental Deduction in Kant’s Critique of Judgment?”, Förster, Eckart, ed. *Kant’s Transcendental Deductions: The Three ‘Critiques’ and the ‘Opus Postumum.’*, Standford, Calif.,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89, pp.157-176.

4) P. Guyer, *Kant and the Claims of Taste*, pp. 42-43.

살펴보았듯 연구자들은 경험적 지식과 학문적 지식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로 칸트의 주장을 비판한다. 그러나 본고는 연구자들의 이런 전제가 다소간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우리는 흔히 경험적 지식은 감각적 체험의 누적을 통해, 과학적 지식은 엄밀한 실험이나 체계적 비교 등의 합리적 검증 활동을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사실 이 같은 합리적 검증의 활동은 그 철저함의 차이는 있겠으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가령 우리가 새로운 경험적 지식을 만드는 데 있어 그것이 기존의 다른 지식들과 더불어 정합적 체계를 이룰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아무리 사소할지언정 단순한 감각적 체험이나 습관적 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위 “믿음의 거미줄”이라 불리는 지식 체계를 지향하는 체계화의 지적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

만일 본고의 주장처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학문적 지식 뿐 아니라 우리의 경험적 지식 역시 체계화의 작업을 비롯한 일정한 합리적 검증 활동의 산물이라면, 이 같은 검증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또한 초월적 원리, 다시 말해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칸트가 『판단력 비판』 서론에서 정의하는바 반성이란 결국 전술한 합리적 검증의 활동을 가리킨다는 것을, 그리고 자연의 합목적성은 그 같은 반성 활동 일반의 원리로서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I 장에서는 경험적 지식의 성격에 관한 칸트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자신의 판단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인지를 합리적으로 검증하려는 판단 주체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을, 또 판단 주체의 그런 지적 노력으로서 수행되는 활동이 바로 ‘반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어 II 장에서는 칸트가 ‘반성’이라 칭하는 각종의 사고 활동들에 대해 분석하는 가운데, 그것들 전부가 합리적 검증의 절차로서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끝으로 III 장에서는 칸트가 『판단력 비판』 서론에서 제시하는 ‘자연의 합목적성’이 이상에서 언급한 합리적 검증 절차로서의 반성 활동 일반의 원리임을 밝힐 것이다. 이로써 자연의 합목적성이 초월적 원리, 즉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라

는 것이 입증되리라고 기대한다. 자연의 합목적성이 경험적 지식에 내재하는 합리적 검증 절차의 원리라는 점은 연구자들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본고에서 해석하기에 그것은 자연의 합목적성에 관한 칸트의 주장의 핵심이다.⁵⁾

5) 필자와 유사한 입장에서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Allison, Henry E, *Kant's Theory of Taste : a Reading of the Critique of Aesthetic Judg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13-42; Ginsborg, Hannah, "The Role of Taste in Kant's Theory of Cognition", Harvard University, 1988; Grier, Michelle, *Kant's Doctrine of Transcendental Illu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263-301.

I. 경험적 지식의 성격 — 객관적 타당성, 합리적 검증의 요구

이번 장에서는 칸트가 정의하는바 경험적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로써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는 ‘반성’이라 불리는 사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칸트는 경험적 지식을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는 한에서의 경험적 판단”, 다시 말해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으로 정의한다. 이 같은 판단은 그것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이라는 판단 주체의 확신을 동반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이 바로 ‘반성’이다. 칸트에 의하면, 판단 주체는 자신의 모든 판단이 아니라 그 중 얼마간의 합리적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만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검증의 절차로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반성이라는 사고 활동이다.

『형이상학 서설』의 한 대목에서 칸트는 인간의 모든 경험적 지식은 경험적 판단, 즉 감각적 체험을 바탕으로 내려지는 판단이지만, 역으로 모든 경험적 판단이 곧 경험적 지식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⁶⁾ 우리의 경험적 판단이 이른바 ‘지각판단’과 ‘경험판단’ 두 종류로 구분된다는 것이 그의 근거이다. 여기서 지각판단이란 ‘이 빵은 맛이 없다’처럼 판단 주체가 대상으로부터 받는 주관적 느낌을 표현하는 판단을 가리키며, 경험판단은 ‘이 빵은 오늘 오전에 구워졌다’와 같이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하는 판단을 가리킨다. 칸트는 이런 두 종류의 경험적 판단 중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정보를 내용으로 함유하는 것은 후자뿐이라는 점을 들어 그것에만 경험적 지식의 지위를 인정한다.

지각판단과 경험판단의 성격차를 제일 극명히 보여주는 예는 『논리

6) 형이상학 서설, §18, IV297.

학』에서 발견된다.⁷⁾ 거기에서 칸트는 우선 지각판단의 예로 ‘나는 저 탑을 볼 때 빨간색을 지각한다’ 를 제시한다. 이 판단은 탑의 실제 색이 야 어떻든 간에, 즉 그것이 회색이든 파란색이든 녹색이든 간에 내 눈에 그것이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뜻으로서, 판단 주체에게만 유효한 느낌이나 인상을 표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경험판단의 예로는 ‘저 탑은 빨간색이다’ 가 언급되는데, 이 판단은 탑이 나에게 무슨 색으로 보이든 간에 그것이 객관적으로 빨간색이라는 뜻이다. 이를 통해서 판단 주체의 지각 상태와 무관한 대상의 객관적 성질이 단언된다.

칸트는 지각판단과 경험판단의 성격 차이를 요약하기 위하여 전자를 “주관적으로만 타당한 판단”, 후자를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는 한에서의 경험적 판단” 이라고 부른다.⁸⁾ 이는 그가 ‘객관적 타당성’ 이라는 말로써 의미하는 바가 그 말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말은 보통 그것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 다시 말해 참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칸트는 참으로서의 진술이 아니라 다만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을 객관적으로 타당한 판단이라고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 이 같은 단언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가령 칸트가 경험판단, 즉 객관적으로 타당한 판단으로 언급하는 ‘저 탑은 빨간색이다’ 라는 판단은 나의 그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탑이 실제로는 회색일 경우 거짓이다. 이처럼 한 판단의 객관적 타당성이란 그것이 참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대신 그것이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으로서 진리치를 가진다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⁹⁾

하지만 이상을 고려하더라도 경험판단이 판단 주체에 의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된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만큼은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같은 판단을 내릴 때 타인들의 보편적인 동의를 요구한다는 사실로부터 역으로 증명된다. ‘저 탑은 빨간색이다’ 라고 판단

7) Logik, §40.

8) 형이상학 서설, §18, IV297.

9) Allison, Henry E,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an Interpretation and defens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pp.72-73. Meerbote, Ralf, “Kant's Use of the Notions “Objective Reality” and “Objective Validity””, *Kant-Studien* 63 (1-4) (1972), pp.51-58 참조.

할 때, 판단 주체는 그 답이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과 무관하게 실제로 빨간색이라고, 또 그러므로 자신의 눈에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는 자신의 판단이 대상과 합치하는 올바른 진술이라고 확신하면서 타인들도 자신과 똑같이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요컨대 경험판단, 다시 말해 대상에 대한 객관적 단언으로서의 판단은 그것이 주관적 감각작용으로부터 독립적인, 따라서 대상과 합치하는 올바른 진술이라는 판단 주체의 확신을 동반한다.

이 같은 경험판단은 보통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 하는 활동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규정은 (물론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층위에서 일어난다. ‘저 답은 빨간색이다’ 라는 판단을 다시 살펴보자. 한편으로 이것은 답의 개념 아래 속하는 한 감각적 대상을 빨간색의 개념으로 규정할 때 만들어지는 판단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판단은 빨간색의 개념을 저 답의 객관적 성질로서 그것에 귀속시킨 결과물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 판단은 다른 한편 눈앞의 답을 ‘실체’의 범주로, 그것의 빨간색을 ‘속성’의 범주로 규정함으로써 산출되는 판단이기도 하다.¹⁰⁾ 이렇듯 경험판단은 감각적 대상들을 각종의 경험적 개념 및 선형적 개념으로 규정할 때 성립하는,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으로서의 경험적 판단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규정적 판단’이라고도 불린다.

중요한 것은 경험판단이 경험적 판단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감각적 체험에 따라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그것이 판단 주체에 의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되는 판단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판단 주체는 자신의 감각적 체험에 의해 뒷받침되는 판단들 전부도 아니라, 그 중 일정한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만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느 날 집 앞의 호수에서 광채가 느껴지면 ‘호수가 스스로 빛을 발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데, 그것은 ‘무색, 무취, 무미’ 라는 물 고유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그런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판단하

10) B128 참조.

는 것이 아니다.

판단 주체는 자신의 판단을 합리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고 활동을 거침으로써만 그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할 수 있고 나아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앞으로 보이겠지만, 그 같은 검증의 절차로서 수행되는 사고 활동이 바로 ‘반성’이다.¹¹⁾ 따라서 규정은 언제나 반성을 전제로만 행해질 수 있다.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반성과 규정을 대립되는 활동처럼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들은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필요한 상보적 사고 활동들이다.¹²⁾ 그렇다면 규정의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험적 지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사실 불완전한 설명일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형이상학 서설』에서 제시되는, 지각판단과 경험판단의 구분을 좀 더 검토하는 가운데 경험적 지식의 반성적 측면을 부각하고자 한다.¹³⁾

『형이상학 서설』에서 칸트는 지각판단을 “아무런 순수 지성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사고하는 주관에서 지각들의 논리적 연결만을 필요로” 하는 판단이라 정의한다. 반면 경험판단은 “감성적 직관의 표상들 위에 지성에서 근원적으로 산출되는 특수한 개념들 또한 필요로” 하는 판단이라 정의한다.¹⁴⁾ 예를 들어, ‘나는 저 탑을 볼 때 빨간색을 지각한다’는 판단 주체에게서 탑의 지각과 빨간색의 지각이 연결되고 있음을 논리적 형식으로, 즉 판단의 구조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반면 ‘저 탑은 빨간색이다’는 탑과 빨간색에 각각 ‘실체’와 ‘속성’의 범주, 즉 “순수 지성 개념” 내지 “지성에서 근원적으로 산출되는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판단이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했듯이 전자는 판단 주체의 주관적 느낌에 대한 진술이고, 후자는 대상의 객관

11) 이는 우리말 ‘반성’의 일반적 의미인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함’과도 상통한다.

12) Allison, Henry E, *Kant's Theory of Taste : a Reading of the Critique of Aesthetic Judg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16.

13) Diss. §5. “지성에 의해 비교됨으로써 생겨나는 반성적 인식이 곧 경험.”

14) 형이상학 서설, §18, IV299. 지각판단과 경험판단의 구별에 관한 아래의 논의는 상당 부분 Longuenesse의 분석에 의존함. Longuenesse, *Kant and the Capacity to Judge*, 7장 참조.

적 성질에 대한 단언이다.

칸트는 지각판단과 경험판단의 구분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제시한다. 그는 지각판단을 경험판단으로 고양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으로 다시 나누면서, 먼저 후자의 예를 통해 지각판단 자체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다. ‘방이 따뜻하다’, ‘설탕이 달다’, ‘썩은 역하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방은 따뜻하다’, ‘이 설탕은 달다’, ‘이 썩은 역하다’ 등은 한 날 주관적으로 타당한 판단들일 뿐이다. 나는 내가 그것을 항상, 또는 다른 누구나 나와 똑같이 볼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들은 단지 두 감각들의 동일한 주관과의, 곧 나 자신과의 관계만을, 그것도 단지 나의 이때의 지각 상태에서의 관계만을 표현할 따름이며, 그래서 또한 객관에 타당할 것이 없다. 그러한 것을 나는 지각판단들이라고 부른다.¹⁵⁾

여기에 인용된 판단들의 공통점은 ‘나는 슬프다’와 같은 판단과 마찬가지로 “결코 객관에 부가되어서는 안 되는 감정[느낌]”¹⁶⁾을 반영하는 개념을 술어로 한다는 것이다. ‘썩은 역하다’라는 판단을 좀 더 살펴보자. 같은 썩을 먹고도 그것이 역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향긋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듯이, 썩에 대한 느낌은 주체의 주관적 입맛과 취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즉 역함의 개념은 주체의 순전한 느낌을 반영하는 술어로서, 대상을 규정하는 데는 쓰이지 못한다. 따라서 이 같은 개념을 술어로 하는 판단은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런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하지 않는다. 애초에 대상에 대한 진술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자신과는 다른 느낌을 표현한다고 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같은 표현의 판단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나와 똑같이 볼 것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칸트는 지각판단들 가운데는 이와 달리 대상의 객관적 성질을 기술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개념을 술어로 하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은

15) 형이상학 서설, §19, IV299.

16) 같은 곳.

경험판단으로 고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이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경험은 나에게 항상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라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경험의 타당성은 주관에만 또는 주관의 당시의 상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판단들을 객관적으로 타당한 판단들이라고 언표한다. 가령 예컨대 “공기는 탄성(彈性)이 있다”고 내가 말한다면, 이 판단은 일단은 단지 하나의 지각판단이다. 나는 내 감각들에서의 두 감각들을 단지 서로 관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이 경험판단이라고 일컬어질 것을 의욕한다면, 나는 이 결합이 그것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하나의 조건 아래에 설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항상 그리고 또한 누구나 같은 지각을 같은 상황 아래에서 필연적으로 결합해야만 함을 의욕하는 것이다.¹⁷⁾

역함의 개념과 달리 탄성의 개념은 주체의 순전한 느낌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상에 객관적으로 귀속하는 성질을 기술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개념인데, 탄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칸트는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에서, 모든 물질은 “공간을 채우는 것”으로서 “모든 다른 움직이는 물질, 그러니까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특정 공간에 침투하려는 모든 다른 물질에 저항”한다고 설명한다.¹⁸⁾ 그리고 이 같은 저항의 힘을 ‘탄성’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탄성이란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자하는 물질의 성질을 가리키며, 그러므로 탄성의 개념은 대상의 객관적 성질을 기술하는 개념으로서 대상을 규정하는 데 쓰일 수 있다.

탄성의 이런 의미를 고려할 때, 우리는 ‘공기는 탄성이 있다’가 어떤 점에서 경험판단으로 고양 가능한 지각판단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가령 공기가 펌프의 압축하는 힘에 저항해 제 부피를 보존하고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을 지키려는 듯 보이거나, 누르는 힘이 사라지자마자 원래의 부피로 다시 팽창하면서 기존의 공간을 수복하려는 듯 보이는 것을 반복 체험함으로써 일어나는 습관적 연합의 산물일 수 있

17) 같은 곳.

18)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2장. Exlication 1; Proposition2. Note 1.

다. 하지만 습관적 연합이 말 그대로 판단 주체의 경향에 따라 주관적,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판단 주체는 이런 습관적 연합에 의존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하지 못한다. 이 경우의 ‘공기는 탄성이 있다’는 판단 주체가 공기의 지각과 팽창의 지각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판단으로서, ‘나는 공기가 팽창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정도를 의미할 뿐이다. 여기서 팽창의 개념은 아직 공기를 규정하는 데 쓰이고 있지 않으며, 그 판단은 ‘이 쪽은 역하다’와 같은 지각판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기는 탄성이 있다’는 단순한 습관적 연합과는 구별되는 합리적 검증 절차를 통해 획득된 판단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그것은 고안된 가설을 실험 등의 방법으로 입증함으로써 얻어진 결론, 그리하여 충분한 설명적 근거를 갖는 판단일 수도 있다. 이 경우 판단 주체는 주체 자신의 지각 상태와 관계없이 공기 자체가 실제로 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팽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공기는 탄성이 있다’를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한다. 이제 이 판단에서 공기의 개념에 속하는 대상은 탄성의 개념에 의해, 또 ‘원인’의 개념에 의해 규정된다.¹⁹⁾ 이렇듯 ‘공기는 탄성이 있다’는 일련의 합리적 검증 절차를 통과한 판단일 경우, 공기의 개념에 속하는 대상을 경험적 개념(탄성) 및 선험적 개념(원인)으로 규정하는 ‘규정적 판단’ 혹은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으로서의 경험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듯 경험판단으로서의 ‘공기는 탄성이 있다’는 공기의 개념과 탄성의 개념 사이에 나의 습관이 부여하는 것 이상의 객관적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작업에 준거해 만들어진다. 즉 그것은 공기와 탄성이 단지 판단 주체의 습관적 연합에 따라 임의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적 지각 상태를 떠나서도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활동을 필요로 한다. 판단 주체는 그 같은 활동 없이는 ‘공기는 탄성이

19) 물론 여기서는 공기와 탄성이 실체-속성의 범주 아래 포섭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칸트가 왜 실체-속성의 범주 대신 원인-결과의 범주를 언급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다만 여기서는 칸트가 원인-결과의 범주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범주로 생각한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있다' 를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확신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판단은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으로서 성립하지 못한다. 이로써 칸트에 의하면, 우리의 경험판단은 예컨대 흄의 주장처럼 습관적 연합에 의존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습관적 연합의 주관성과 자의성을 극복하려는 합리적 검증의 사고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습관적 연합은 검증되어야 할 가설들, 다시 말해 판단 주체가 이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들인 지각판단들을 제공할 뿐이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개념들 간의 객관적 연관 관계를 탐색하는 위와 같은 사고 활동을 ‘논리적 반성’이라 부른다.²⁰⁾ 즉 그에 의하면, “모든 객관적인 판단에는 개념들을 비교하는 활동”(A262/B317; 필자의 강조)으로서의 논리적 반성이 선행한다. 그래서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으로서의 ‘공기는 탄성이 있다’는 공기의 개념과 탄성의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그것들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반성의 사고 활동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앞에서는 실험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역시 넓게 보면 개념들을 비교하는 논리적 반성의 일환이다.

이제 우리는 ‘공기는 탄성이 있다’가 지각판단에서 경험판단으로 고양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기가 펌프의 움직임에 따라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것을 반복 목격하면서 지각판단으로서의 ‘공기는 탄성이 있다’가 형성된다. 둘째, 판단 주체는 공기의 개념과 탄성의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자신의 반복적 체험이 지지하는 판단인 ‘공기는 탄성이 있다’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인지를 합리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며, 이런 검증의 작업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로 칸트가 정의하는바 ‘반성’의 활동이다. 셋째, 반성을 통해 두 개념이 판단 주체의 지각상태로부터 독립해 객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판단 주체는 공기의 개념을 원인의 범주 아래, 탄성의 개념을 결과의 범주 아래 포섭한다. 또 이로써 공기의 개념에 속하는 개념을 탄성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공기는 탄성이 있다’는 이상의 과정을 거쳐 경험판단, 즉

20) A262/B318.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으로 성립한다.

칸트는 지각판단에서 경험판단으로의 고양 과정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추가로 한 가지 예를 더 제시한다. 사실 ‘공기는 탄성이 있다’ 는 지각판단으로서나 경험판단으로서나 동일한 외관을 갖는 탓에 그 둘의 구분을 예시하기에 아주 적합한 판단은 아니다. 그리하여 칸트는 ‘태양이 돌을 비추면, 돌이 따뜻하게 된다’ 라는 판단이 ‘태양이 돌을 따뜻하게 만든다’ 라는 판단으로 고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더 통찰하기 쉬운 예를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태양이 돌을 비추면, 돌이 따뜻하게 된다’ 는 예를 취해보라. 이 판단은, 내가 아무리 자주 그리고 다른 이들이 또한 제아무리 자주 그렇게 지각한다고 해도, 순전한 지각판단일 따름으로, 아무런 필연성을 함유하지 않는다. 지각들이 단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결합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태양이 돌을 따뜻하게 만든다” 고 말하면, 지각 위에다 햇볕이라는 개념과 따뜻함이라는 개념을 필연적으로 연결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성개념이 덧붙여진다. 그래서 이 종합판단은 필연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되고, 따라서 객관적인 것으로 그리고 지각에서 경험으로 변환된다.²¹⁾

이 세 번째 예에 대해서도 ‘공기는 탄성이 있다’ 라는 예에서와 동일한 논리의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는 해가 뜬 한낮에 돌이 따뜻한 상태로 있는 것을 반복 목격하면 습관적 연합을 통해 ‘태양이 돌을 비출 때, 돌은 따뜻하게 된다’ 라는 판단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태양이 실제로 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다만 판단 주체의 눈에 사태가 그렇게 보인다는 뜻에 불과하다. 즉 이것은 태양의 지각과 돌의 따뜻함의 지각을 연결하는 판단 주체 자신의 경향에 관한 판단일 뿐 태양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그리고 물론 판단 주체는 이를 아직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감각적 체험 및 그 누적으로서의 습관적 연합에 머물지 않고, 태양의 개념과 따뜻함의 개념이 주관적인 지각 상태와 독립해서 객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지적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즉 우리는 잘 설계된 실험을 수행하거나 혹은 복사열에

21) 형이상학 서설, §20, IV301 .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동원하는 등의 작업들을 포괄하는 논리적 반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성공할 경우 판단 주체는 태양이 단지 자신의 눈에 돌을 따뜻하게 하는 듯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물들의 온도를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로 ‘인해’ 돌이 따뜻해지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이때 태양의 개념을 ‘원인’의 범주 아래, 따뜻함의 개념을 ‘결과’의 범주 아래 포섭하여 ‘태양이 돌을 따뜻하게 만든다’라는 규정적 판단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야 태양의 객관적 성질이 단언되는 경험판단이 성립한다.

이제 칸트가 정의하는바 경험적 지식의 성립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반복적으로 연쇄하는 지각들을 연합하는 가운데, 그것을 논리적 형식으로 번역해 지각판단을 수립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판단 주체의 느낌, 인상 등 지각 상태를 표현하는 판단으로서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정보를 함유하지 않는다. 둘째, 판단 속의 두 개념을 비교하면서 그것들이 판단 주체의 경향에 따라 임의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반성의 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반성 활동의 결과 두 개념 사이에 실제로 연관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면 그것들을 범주들 아래 포섭한다. 또 이를 통해 지각의 대상을 경험적 개념(특히 판단의 술어로 쓰이는 개념) 및 선험적 개념으로 규정한다. 판단 주체는 이런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하며, 이로써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으로서의 경험판단이, 그러므로 경험적 지식이 획득된다.

지각판단과 경험판단의 구분 및 전자에서 후자로의 고양에 관한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는 반성이라 불리는 사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판단 주체에 의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된다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갖는다. 그런데 감각적 체험이나 습관적 연합은 판단 주체에게 이 같은 확신을 제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의 한 판단이 습관적 연합에 의해 뒷받침된다하더라도 그 판단이 만일 자신의 다른 판단들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이 아닌 착오의 산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판단 주체는 습관적 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많은 경험적 판단들 가운데 일정한 합리적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만을 대상에 대

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한다. 칸트가 정의하는바 반성이란 바로 그런 합리적 검증의 절차로서 행해지는 사고 활동이며, 따라서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하다. II장에서는 칸트가 반성이라 부르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 각각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서 반성의 역할 — 합리적 검증의 절차

앞에서는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성이라 불리는 사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였다. 칸트는 경험적 지식을 경험판단, 즉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과 동일시한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판단 주체에 의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된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검증’의 절차가 반성이다. 우리의 감각적 체험이나 습관적 연합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될 수 있는 후보들을 제공한다. 판단 주체는 그것들 중 반성이라는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형성되는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으로서의 경험판단이 우리의 경험적 지식을 이룬다. 칸트는 여러 저작을 통해, 대상들을 비교해 개념을 만드는 작업, 개념들을 비교해 판단을 만드는 작업, 판단들을 비교해 추론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판단들 전체를 비교해 판단의 체계를 만드는 작업 등 각종의 비교 작업들을 반성이라 통칭한다. 이번 장에서는 각각의 반성 활동들이 어떻게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검증의 절차로 맞물려 기능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1. 표층적 반성의 목표: 대상에서 개념으로, 개념에서 판단으로

<대상들로부터 개념을 만드는 반성>

근대 논리학에서 논리적 정보를 담은 최소 단위의 표상으로 이해되는 것은 개념이며, 판단과 추론은 그런 개념들을 연결하고 조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결합물로 설명된다.²²⁾ 주지하듯 칸트는 『논리학』에서 감성적 표상인 직관(Anschauung; ‘바라봄’이라는 뜻)과 지성적 표상인 개념을 대립시키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한다.²³⁾ 직관은 말 그대로 시공간의 틀 속에서 정렬된, 대상에 대한 지각들을 가리키며, 한 대상의 직관은 그 공간적 위치와 형태, 존재시점, 원초적 감각들 등등의 지각적 정보를 함유한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시공간 상의 동일한 지점을 함께 차지하거나 완전히 일치하는 감각들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주듯, 지각적 정보는 본래 개별 대상에만 유효하다. 칸트는 이런 의미에서 직관을 개별 표상으로 정의하고, 개념을 그와 반대의 보편 표상으로 언급한다. 회색 입방의 상(像)을 포함한 지각들의 덩어리가 눈앞에 보이는 건물의 직관이라면, 추위와 눈비를 막아주는 주거 공간이라는 점을 비롯해 그것이 다른 유사한 대상들과 공유하는 성질에 관한 정보들의 집적이 바로 건물의 개념이다. 개념은 복수의 대상들이 보편적으로, 다시 말해 공통으로 갖는 성질에 관한 정보를 담은 최초의 표상이다.

칸트는 『논리학』에서 개념을 보편 표상으로 정의하는 데 이어, 그것을 “반성된 표상”²⁴⁾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개념이 반성의 사고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함축한다. 다음의 대목을 살펴보자.

표상들로부터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듯 **비교**하고 **반성**하고 **추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지성의 이 세 논리적 작업이 어떤 개념이 됐건 그 모든 개념을 생성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조건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내가 가문비, 버들, 보리수를 본다 치자. 처음에 나는 이 대상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것들이 등치, 가지, 잎 등과 관련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다음으로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 곧 몸

22) 개념, 판단, 추론의 순서가 처음 제시된 것은 고전 논리학. 그러나 고전 논리학이 그것들에 존재론적 함의를 부여했던 반면, 근대 논리학에서 그것들에 인식론적 의미로 사용됨. 에른스트 투겐트하트, 우슬라 볼프, 하병학 역, 『논리-의미론적 예비학』, 1999 참조.

23) *Logik*, §1.

24) *Logik*, §6.

통, 가지, 잎 자체를 반성하고, 그것들의 양, 형태 따위를 추상한다; 이런 식으로 나는 나무의 개념을 얻는다.²⁵⁾

우리의 개념은 대상들을 ‘비교’ 하는 가운데 그것들의 차이점은 ‘추상’ 하고 공통점만 ‘반성’ 하는 삼중의 작업을 통해 형성된다. 이런 비교, 반성, 추상은 단계적 활동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즉 이것들은 일차로 대상들을 비교한 후 이어 그것들의 공통점을 추출하고 다시 차이점을 배제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일어나는 별개의 활동들이 아니다. 공통점을 추출하는 일과 차이점을 배제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한 작업의 양면이고, 대상들을 비교하는 일 역시 그것들과 동시에 시작하고 끝날 수밖에 없다. 이 작업들은 각각적 대상들로부터 개념을 만드는 활동의 분리 불가능한 세 측면을 편의상 구별해 둔 것에 불과하며, 이것이 칸트가 ‘반성’ 을 그것들의 대표로 삼아 개념을 “반성된 표상” 으로 정의하는 배경이다.²⁶⁾ 개념은 추상화하는 비교작업으로서의 반성을 통해 형성된다.

물론 개념이 추상화하는 비교 작업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은 칸트의 독창적인 주장은 아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험주의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 어찌 보면 평범한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로크의 경우, 우리에게서 백목의 색과 눈(雪)의 색으로부터 흰 일반의 관념을 만들 때처럼 인간에게는 특수 관념들을 비교해 그것들을 추상화함으로써 일반 관념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²⁷⁾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흙 또한 “모든 종류의 추리는 비교에, 다시 말해 둘 혹은 그 이상의 대상들이 서로와 맺는 지속적이거나 비지속적인 관계들의 발견에 불과하다”²⁸⁾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경험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는 비교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보편자의 지위에 관해 경험주의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먼저 경험주의자들에 의하면, 비교 활동의 산물로서의 일반 관념은 인간의

25) 같은 곳.

26) Longuenesse, 1998, p.116.

27) Locke, *Essay*, Chaper 11.

28) 흙, *Treatise*. bk. 1, pt.3, sec. 2, 73.

머릿속에서만 유효할 뿐 대상과는 관계없는 것, 즉 유명무실의 기호에 불과하다. 특히 로크가 생각하기에, 감각적 대상들은 각자에 고유한 개별적 성질만을 갖지 다른 대상들과 공유하는 보편적 성질은 갖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 속에는 일반자와 보편자가 없다; 그것은 오성의 발명품이자 창작물, 즉 오성 자신의 사용을 위해 오성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은 단어이든 관념이든 간에 기호와 관련될 뿐이다.” 29)

반면 칸트는 이런 경험주의자들과 달리 개념이 실제로 “대상과 관계” (A155/B194)를 맺을 수 있고 따라서 공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심지어 개념은 것처럼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음으로써만” (A69/B94) 개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말하면서, 대상과의 관계를 개념의 본질적 요소로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시공간 상의 감각적 대상들은 반드시 보편적 성질을 가지며, 개념은 그런 보편적 성질을 파악함으로써 형성되는 지적 표상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만들어진 개념은 감각적 대상들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보편적 성질을 반영한다. 반성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험적 개념들이 “객관적 실재성” (A84/B116)을 가질 수 있다고 그가 주장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이다. 여기서 이에 관한 칸트의 입장을 자세히 다루기는 어려우나, 대신 우리가 보편자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특수한 대상들 자체가 우리에게 표상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라는 점만 지적하기로 하자.

더욱 중요한 것은 비교, 반성, 추상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이 같은 개념이 지각들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판단들, 다시 말해 우리의 경험적 판단들 가운데서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을 선별하기 위한 지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우리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서의 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 어느 순간 물이 반짝이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도 그것은 물이 실제로 빛을 냈기 때문이 아니라 햇빛이 거기에 반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통상의 투명함이 지각될 경우에는 물 그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물의 개념은 판단 주체로 하여금 그에 합치하는 판단인 ‘저 물은 투명하다’를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하게 하는 한

29) Locke, 같은 책, Chapter 3, §11.

편, 반대로 ‘저 물은 빛을 내뿜는다’와 같은 식의 판단은 금지한다.³⁰⁾

이처럼 개념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을 성취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감각적 대상들로부터 개념을 만드는 비교, 반성, 추상의 활동은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요구되는 검증의 절차로 이해될 수 있다. 개념을 만드는 우리의 반성 활동은 주관적인 감각적 체험의 단순한 일반화로 환원되지 않는다. 칸트가 그 같은 활동을 “분석”의 작업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³¹⁾ 통상 우리는 똑같은 현상을 목격하더라도 그 의미를 더 적절히 파악하는 사람을 두고 ‘분석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용법에는 분석이 감각적 체험의 누적 이상의 작업이라는 생각을 함축한다. 대상들을 비교해 개념을 만드는 활동의 이 같은 성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당수의 개념들이 실상 실험 등의 이론적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로부터도 확인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상들로부터 개념을 만드는 반성 활동이 어떻게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필요한 일종의 검증 절차로서 기능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개념은 감각적 체험 혹은 그 누적으로서의 습관적 연합이 뒷받침하는 경험적 판단들 가운데서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을 선별하기 위한 지표 내지 규칙의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개념을 만드는 비교, 반성, 추상의 활동은 습관적 연합 이상의 검증 절차로서 행해진다. 다음으로는 개념들을 비교해 판단을 만드는 반성 활동이 경험적 지식의 획득을 위한 검증 절차로서 하는 기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의 모든 경험적 지식은 판단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개념들을 비교해 판단을 만드는 반성 활동은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역할을 한다.

<개념들로부터 판단을 만드는 반성>

30) 개념의 이 같은 규범적 성격에 대해서는 III장 1절에서도 다룸.

31) B134.

개념들을 비교해 판단을 만드는 반성 활동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칸트가 정의하는바 판단의 성격부터 규명할 필요가 있다. 판단은 흔히 “두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한 표상”(B140)으로 정의되지만, 칸트는 이것이 각종 판단 형식들 간의 구별을 무디게 만드는 불충분한 정의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두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한 표상”이라는 정의는 특히 긍정판단과 무한판단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긍정판단 “영혼은 단순하다”와 무한판단 “영혼은 불사적이다”를 살펴보자. 개념들의 관계만 따지자면 이것들은 ‘~은/는 ~이다’이라는 계사로 묶여 있으며 ‘~이 아니다’라는 부정 어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류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가 영혼의 개념 아래 속하는 대상을 ‘단순함’의 외연 속에 한정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그 대상이 ‘필멸’의 외연을 제외한 무한정의 영역 속에 위치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요컨대 긍정판단과 무한판단은 그 판단을 통해 규정되는 대상과 관련해 전혀 다른 의미를 표명하며, 우리는 판단에서 대상이 규정되는 방식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긍정판단과 무한판단 간의 차이를 포착할 수 없다.³²⁾

이런 맥락에서 칸트는 판단의 형식은 그에 의해 표명되는 내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판단은 “두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한 표상”으로서 보다는 차라리 두 개념이 대상과 관련하여 맺는 관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그는 『논리학』에서 ‘A는 B이다’라는 판단의 의미는 개념 A가 귀속되는 모든 대상 x에 개념 B 또한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상의 측면을 도입해 판단을 정의한다.³³⁾ 그가 판단을 “주어지는 인식들을 통각의 **객관적** 통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이다. 판단은 “인식들”(여기서는 개념들)이 “객관적”으로 맺고 있는, 즉 대상과 관련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논리적 표상이다.

나는 판단이란 다름 아니라 주어지는 인식들을 통각의 **객관적** 통일로 가져가는 방식임을 발견한다. 인식들에서 관계사[關係辭, 繫辭] ‘이다’ [~하

32) A72-3/B97-8.

33) *Logik*, §36.

다]는 이것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어지는 표상들의 객관적 통일을 주관적 통일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이 관계사는 판단 자신이, 예컨대 ‘물체는 무겁다’ 에서처럼, 경험적이고 따라서 우연적이라 하더라도, 표상들의 근원적 통각과의 관계맺음 곧 표상들의 필연적인 통일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렇게 해서만 이 관계로부터 하나의 판단, 곧 객관적으로 타당한 관계가 생기고, 그것은 한낱 주관적 타당성만을 갖는, 예컨대 연합의 법칙에 따르는 표상들의 관계와 충분히 구별된다. (B141-2)

여기서 칸트는 판단 형식 ‘~이다’ 가 “겨냥” 하는 것이 인식들의 “객관적 통일” 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판단 일반의 목표가 단지 두 개념 사이의 순수한 논리적 관계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들이 대상과 관련하여 맺는 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칸트에 의하면, 우리는 한 판단을 만들 때 그 판단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이기를 의도한다. 그래서 가령 우리는 ‘물체는 무겁다’ 라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서 보편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칸트가 판단을 두 개념 사이의 형식적 관계에 대한 표상이 아니라 그것들이 대상과 관련하여 맺는 관계에 대한 표상으로 정의한다는 사실은 개념들을 비교하는 반성 활동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 좋은 단서가 된다. 말하자면, 판단이 개념들 간의 형식적 관계에 대한 표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개념들의 비교 활동 또한 순전한 논리적 연산 혹은 이른바 ‘일반 논리학’ 적 의미에서의 작업이 아니다. 여기서 일반 논리학은 널리 말해지듯 “지성이 지향하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는 제쳐두고” 모순율/동일률처럼 지성에 내장된 “필수적인 사고의 규칙들만” 을 다루는 보통의 형식 논리학을 일컫는다.³⁴⁾ 이런 일반 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개념들을 비교하는 활동은 현실의 감각적 대상들과 무관하게 순수 논리적 원리에 따라 진행되는 작업에 해당한다. 즉 주어진 개념들이 논리적으로 동치이거나 분석적 함축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모순되는지를 따지는 순수한 논리적 연산이 일반 논리학적 관점에서의 비교 활동이다.

34) A52/B76.

그러나 위에서 제시했듯 우리의 판단 자체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 같은 판단을 만들기 위해 개념들을 비교하는 작업은 순수한 논리적 연산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동일률/모순율을 따라 진행되는 순수한 논리적 연산은 대상과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으로서, 비교되는 개념들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을 확인시켜줄 뿐 그것들이 대상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또 그런 만큼 판단 주체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서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와 달리 칸트가 정의하는바 개념들을 비교하는 반성의 활동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작업, 다시 말해 개념들이 대상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³⁵⁾ 이어지는 부분에서 개념들을 비교하는 반성 활동에 관한 칸트의 설명을 검토할 것이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초월적 분석학’의 부록 ‘반성개념들의 모호성에 대하여’에서 개념들을 비교하는 반성의 활동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거기에서 판단을 만들기 위해 개념들을 비교하는 작업은 ‘논리적 반성’이라 칭해지며, 그런 논리적 반성의 틀 기능을 하는 특별한 개념이 바로 ‘반성개념’이다. 즉 반성개념은 비교 활동의 대상이 아닌 틀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일반적 개념들과 구별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로 개념들을 비교하는 활동이 그것들의 객관적 관계를 규정할 적절한 판단 형식을 찾는 작업인 만큼, 기본적으로 반성개념들은 저마다 특정 판단 형식에 상응하는 쓰임새를 갖는다. 그리하여 양, 질, 관계, 양상 네 종류의 판단 형식들이 있는 것처럼 반성 개념들도 네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 가운데 판단의 논리적 질의 측면과 관련된 비교 활동의 틀로 쓰이는 반성개념인 ‘부합’과 ‘상충’을 대표로 살펴보기로 하자.

35) Longuenesse, 1998, 특히 5장과 6장. 롱그네스는 순수 논리적 연산으로서의 논리적 반성을 “좁은 의미에서의 논리적 반성”으로, 감각적 대상들과 관련하여 개념들을 비교하는 작업으로서의 논리적 반성을 “넓은 의미에서의 논리적 반성”으로 명명한다. p.127.

모든 객관적인 판단에 앞서 우리는 개념들을 비교하는데, ... **긍정**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부합의 관점에서, **부정**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충**의 관점에서 개념들을 비교한다. (A262/B317-8)

논리학의 일반적 용법에 따라 칸트 역시 ‘A는 B이다’ 라는 형식의 판단을 긍정판단으로, ‘A는 B가 아니다’ 라는 형식의 판단을 부정판단으로 명명한다. 여기서 긍정판단은 개념 A와 개념 B가 부합한다는 것을, 즉 두 개념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주어에 술어로서 함께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한다. ‘모든 꽃은 향기롭다’ 가 그 예로, 여기서 꽃의 개념과 향기의 개념은 장미, 백합 등등의 개념에 함께 귀속될 수 있다. 반대로 부정판단은 개념 A와 개념 B가 상충한다는 것을, 즉 두 개념이 서로를 배제하므로 동일한 주어에 술어로서 함께 귀속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한다. ‘사과는 육류가 아니다’ 라는 판단은 사과와 육류의 개념이 어떤 다른 개념에도 함께 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 사과이면서 동시에 육류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표명한다. 우리는 주어진 두 개념을 비교해 그것들이 부합하는지 아니면 상충하는지를 가리고, 그에 준거해 개념들에 긍정판단의 형식을 부여하거나 부정판단의 형식을 부여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칸트가 부합과 상충을 기준으로 한 비교 작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객관적 판단” 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즉 그에 의하면, 부합과 상충의 개념이 표시하는 것은 개념들 간의 순수한 논리적 관계가 아니라 그것들이 대상과 관련해 맺고 있는 객관적 관계이다. 그래서 가령 부합은 개념들 간의 분석적 동일성보다는 약한 관계이고 무모순성보다는 강한 관계이다.³⁶⁾ 이미 말했듯 ‘모든 꽃은 향기롭다’ 라는 긍정판단은 꽃의 개념과 향기로움의 개념이 부합한다는 것을 표명한다. 그런데 이 판단은 한편으로 꽃의 개념이 향기로움의 개념과 논리적으로 동치라는 것 또는 꽃의 개념이 향기로움의 개념을 분석적으로 함축한다는 것보다 약한 의미이고, 다른 한편 두 개념이 단순히 상호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보다 강한 의미이다. 전자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모든 꽃은 식물이다’ 와 같은 분석적 판단이 필요하며, 후자는 ‘모든

36) Longuenesse, 1998, p.137.

꽃은 빵을 좋아한다’ 정도의 황당한 판단으로도 손쉽게 표현될 수 있다. 상충의 반성개념 역시 개념들 간의 모순보다 약한 의미를 표명한다.

이상의 논의는 개념들이 서로 부합하는지 상충하는지를 비교하는 활동, 나아가 논리적 반성의 활동 일반이 순수한 논리적 연산과 구별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개념들을 비교하는 반성의 활동은 “객관적인 판단”을 만들 목적에서 그것들이 대상과 관련하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우리는 동일률/모순율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판단이라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모순을 범하지만 않는다면 감각적 체험이나 습관적 연합이 뒷받침하는 모든 판단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의 판단 활동의 목표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개념들을 비교하는 논리적 반성의 활동은 이런 목표 아래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개념들이 대상과 관련해 맺고 있는 관계를, 즉 그것들의 ‘객관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같은 논리적 반성의 활동은 한 판단 속에서 결합되는 개념들 사이에 습관적 연합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객관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는 이를 통과한 판단만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해 단언할 수 있다.

하지만 개념들을 비교하는 반성 활동의 목표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을 만드는 것인 한에서, 그것은 보다 고차적인 비교 활동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우리는 자신의 판단이 기존의 다른 판단들과 배치될 경우 그것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판단들 전체를 비교하는 작업에 의존해서만 개념들을 비교해 판단을 만드는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예컨대 커피의 개념과 수면의 개념을 비교해 ‘커피는 수면을 방해한다’라고 판단하는 이면에서는 그 판단이 ‘음식물은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의 다른 판단과 정합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항상 수행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대상들을 비교하는 반성이나 개념들을 비교하는 반성 뿐 아니라 판단들을 비교하는 고차적인 반성 활동 또한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요구되는 검증의 절차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2.2. 심층적 반성, 혹은 이성적 전망에서의 반성: 판단들의 체계

잘 알려져 있다시피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반성을 주어진 특수자들을 규정할 보편자를 찾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를 환언하여 반성을 주어진 질료를 규정할 형식을 찾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그런 의미에서 ‘질료와 형식’을 “모든 반성의 기초에 놓여 있는 두 개념”(A266/B322)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칸트는 『논리학』에서 우리의 논리적 표상들을 ‘개념’, ‘판단’, ‘추론’, ‘판단 체계’ 네 종류로 구별하면서 그것들 각각을 이루는 질료와 형식에 대해 설명한다. 즉 그에 의하면, 먼저 개념은 질료로서의 대상들과 형식으로서의 보편성의 결합이다. 판단은 질료로서의 개념들과 형식으로서의 판단 형식의 결합이며, 마찬가지로 추론은 질료로서의 판단들과 형식으로서의 추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마지막으로 판단들의 체계는 질료로서의 판단들 전체와 그것들을 조직하는 형식으로서의 체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칸트의 이런 구분에 맞추어 반성 활동에도 크게 네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앞서 논의한 대상들을 비교해 개념을 만드는 반성, 개념들을 비교해 판단을 만드는 반성에 더해, 판단들을 비교해 추론을 만드는 반성과 판단들 전체를 비교해 판단들의 체계를 만드는 반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칸트는 사고의 능력들을 구분함에 있어, 지성을 개념과 판단의 능력으로, 이성을 추론과 체계의 능력으로 제시한다. 이성은 지성의 산물인 개념과 판단을 조직해 추론과 체계를 만드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지성보다 고차의 능력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개념과 판단을 만드는 지성적 반성을 ‘표층적’ 반성으로, 추론과 체계를 만드는 이성적 반성을 ‘심층적’ 반성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우리의 반성 활동을 이렇게 구분할 때, 표층적 반성과 심층적 반성은 흔히 단계적 활동으로 해석된다. 가령 전자는 경험적 지식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고 후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경험적 지식을 학문적 지식으로 정교화하는 데 요구되는 활동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심층적 반성은 경험적 지식의 성립 자체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이번 절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는 판단들을 비교해 추론을 만드는 작업과 판단들 전체를 비교해 체계를 만드는 작업 등 심층적 반성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판단들로부터 추론을 만드는 반성>

『논리학』에서 칸트는 판단을 이루는 질료와 형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성 추론의 **질료**는 선행하는 명제들 내지 전제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형식**은 **추리[consequentia]**를 함유하는 한에서의 결론 속에 있다.³⁷⁾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기존의 판단들이 대전제와 소전제로 주어지면 그것들의 관계가 함축하는 새로운 판단을 결론으로 도출해 추론을 구성한다. 즉 추론은 전제들을 질료로 삼아 추리 형식을 통해 분석적 귀결을 이끌어낼 때 형성되는, 판단들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표상이다. 추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제들에 올바른 추리 형식을 적용하는 것이 단연 중요한 만큼, 여기서도 그런 올바른 형식을 찾는 반성 활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주어진 전제들을 비교해 그것들의 구조와 의미, 함축 관계 및 연결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만 적절한 추리 형식을 골라 추론을 완성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를 귀결로 하는 추론에는 우선 대전제 모든 ‘인간은 죽는다’와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를 비교하면서, ‘P는 Q이고, Q는 R이면, P는 R이다’와 같은 정언적 추론의 형식이 그 전제들을 연결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최적의 형식임을 발견하는 일이 요구된다.

37) *Logik*, §59.

개념과 판단 뿐 아니라 그보다 고차의 논리적 표상인 추론을 만드는 데에서도 표상들(여기서는 판단들)을 비교하는 반성 활동은 필수적 절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반성은 개념을 만들거나 판단을 만드는 반성과는 달리 경험적 지식, 그러니까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으로서의 판단의 성립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추론을 만들기 위한 반성은 기존 판단들의 관계에 논리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바를 명확히 드러내주는 형식을 찾는 작업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판단들이 기왕에 성립해 있을 때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판단들을 비교하는 반성은 판단들이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수행되는 활동이지 그것들의 산출 자체에 필요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상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추론을 구조화하려는 지적 노력에 의존해서만 대상에 대한 객관적 단언일 수 있으며, 따라서 판단을 비교해 추론을 만드는 반성 활동은 경험적 지식의 성립 자체에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에 대한 칸트의 정의를 다시 검토하면서 이를 분명히 해보자.

모든 판단에는 많은 표상들에 타당한 한 개념이 들어 있고, 이 많은 표상들 가운데에는, 궁극적으로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한 주어진 표상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예컨대 **“모든 물체는 가분적[可分的]이다”**라는 판단에서, 가분성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여러 개념들과 관계 맺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서도 그것은 여기서는 특히 물체라는 개념과 관계 맺어져 있다. 그런데 이 물체[라는 개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과 관계 맺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대상들은 가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매개적으로 표상된다. 따라서 모든 판단들은 우리 표상들 간의 통일 기능[함수]들이다. 하나의 직접적인 표상 대신에 이 표상과 그 외의 더 많은 표상들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표상이 대상 인식을 위해 사용되고, 그로써 많은 가능한 인식들이 한 인식 안에서 집약되고 있으니 말이다. (A68-9/B93-4)

앞선 1절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의 실제 판단이 표명하는 것은 분석적 동일성이나 무모순성 등 개념들 상호 간의 순전한 논리적 관계가 아니라 그것들이 감각적 대상과 관련하여 맺는 관계, 즉 그것들 간의 객관적인

관계이다. 현실의 감각적 대상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판단은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 내지 “주어지는 인식들을 통각의 객관적 통일로 가져가는 방식” (B141)이다. 위 인용문에서 칸트가 판단을 “우리 표상들 간의 통일 기능[함수]”으로 정의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이다.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라는 판단이 표명하는 것은 가분성의 개념이 물체의 개념을 비롯해 공기의 개념, 국가의 개념 등 여러 많은 개념을 포함한다는 논리적 정보만이 아니다. 그것은 이런 논리적 정보의 이면에서, 물체의 개념에 포섭되는 모든 감각적 대상(“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한 주어진 표상”, “현상들”)이 가분성의 개념에도 포섭된다는 생각을, 곧 모든 그 같은 대상이 가분성의 개념 아래서 “집약”되고 “통일”된다는 객관적 이해를 표명한다.

판단의 성격에 관한 위 인용문에서의 서술은 판단 주체가 자신의 판단 속에 있는 숨은 추론 구조에 의존해서만 자신의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확신할 수 있고, 그리하여 그 판단이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역설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추론은 판단들이 주어진 이후에야 형성 가능한 이차적 복합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개별 판단의 배경에 자리하면서 그것들을 대상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단언으로서 성립시켜주는 내재적 구조이다. 즉 우리의 판단은 이미 추론이며, 이는 두 가지 방향에서 그렇다.³⁸⁾

먼저 판단 주체는 자신의 판단이 추론에서의 대전제 역할을 할 때에만 그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할 수 있다.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라는 판단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익숙한 예인 ‘모든 인간은 죽는다’를 생각해보자. 이 판단은 인간의 개념에 포섭되는 모든 감각적 대상이 죽음의 개념에도 포섭된다는 것을 표명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것은 ‘어떤 감각적 대상 x 는, 그것이 인간의 개념에 포섭될 경우 죽음의 개념에도 포섭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의미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x 는 인간이다; 따라서 x 는 죽는다’의 추론 구조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만일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판단이 추론의 대전제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면, 즉 예외를 허용하는 느슨한 판단에 불과하다면, 판단 주체는 그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하지 못한

38) Longuenesse, 1998, pp.94-95.

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판단 주체는 자신의 판단을 한 추론의 대전제로서 뿐 아니라, 또 다른 추론의 결론으로 여기는 한에서만 그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I 장에서 보인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 연합에 의존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확신할 수 없다. 즉 판단 주체는 단순히 사람들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를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판단을 설명해 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한다. 가령 그 같은 확신을 위해서는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모든 인간은 생명체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추론을 만들면서, 자신의 판단을 보다 상위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귀결로 생각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판단 주체는 추론의 구조를 탐색하는 반성의 활동을 통해서만 자신의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할 수 있다. 즉 판단 주체가 자신의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지의 원리에 근거해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개념들을 비교해 판단을 만드는 이면에서 또한 판단들을 비교해 추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다시 말하자면, 표층적 반성은 그 이면에서 심층적 반성이 맞물려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만 제 목표를 완수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심층적 반성에 의존한다.

<판단들 전체로부터 판단의 체계를 만드는 반성>

다음으로는 칸트가 언급하는 또 다른 종류의 심층적 반성인 판단들 전체를 비교하는 반성의 활동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칸트가 『논리학』에서 언급하는 가장 고차적인 수준의 질료-형식은 판단들 전체-판단들의 체계로서의 학문이다. 질료를 규정할 형식을 찾는 작업이 다름 아닌 반성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판단들의 체계를 만들기 위한 반성 활동이 있

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학문의 형식’이라는 제목이 붙은 한 절을 읽어보자.

학문으로서의 인식은 방법에 따라 정렬되어야 한다. 학문을 위한 방법은 인식의 체계로서의 전체이지,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체계적 인식을, 그러므로 우리가 반성해 온 규칙들에 따라 구성된 인식을 필요로 한다.³⁹⁾

이 인용문이 잘 보여주듯 칸트는 학문을 판단들 내지 지식들의 체계로 정의한다. 즉 그에 의하면, 학문이란 질료로 주어진 우리의 지식들을 체계성이라는 형식에 따라 조직함으로써 수립되는 지식들의 총체로서, 그것들의 단순 누적으로 만들어지는 무질서한 집합과 구별된다. 이 같은 학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은 근대의 자연과학인데, 그것은 이를테면 만유인력의 법칙 아래에 자유낙하의 법칙과 행성운동의 법칙이 자리할 때 완성되는 하나의 체계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의 발견 이전에, 자유낙하의 법칙과 행성운동의 법칙은 오랫동안 서로 무관한 현상들을 지배하는 법칙들로 여겨져 왔다. 다시 말하자면, 높은 곳의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과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원심 운동하는 현상은 별개의 사태들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여러 자연법칙들을 함께 비교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해줄 근본 법칙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법칙들의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마침내 학문에 이를 수 있었다.

이처럼 판단들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단들 전체를 비교하는 반성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판단들을 비교해 추론을 만드는 반성 활동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체계화의 반성 역시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즉 그것은 주어진 판단들을 조직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판단들이 일단 주어진 다음에야 행해지는 사후의 정교화 작업인 것으로, 혹은 기왕의 경험적 지식을 학문적 수준으로 고양하는 부가적 작업인 것으로 보이기 쉽다.

하지만 앞서 밝힌 것처럼 개념들을 비교해 판단을 만드는 활동의 목표

39) *Logik*, §95.

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을 만드는 데 있음을 고려한다면, 판단들 전체를 비교하는 반성 활동은 사실 개별 판단을 만드는 데에서부터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감각적 체험이나 습관적 연합은 무수히 많은 판단들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 중에는 물론 기존 판단들과 일관되지 않은 것도 있다. 하지만 그 같은 판단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이 아닌 “결함 있는 인식” (A646/B676)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고 판단 주체는 결국 그것을 감각적 착오의 결과로 여기면서 폐기하게 된다.

그러나 판단들의 체계성은 한 판단을 폐기하게 하는 소극적 기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주체가 자신의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하게 하는 적극적 기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판단 주체는 자신의 판단이 기존의 다른 판단들과 더불어 아치의 각 부분들처럼 서로를 지지하는 견고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한다. 칸트가 판단들의 체계성을 “진리성의 시금석” (A648/B676) 내지 “경험적 진리의 징표” (A651/B679)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이다. 판단 주체가 자신의 판단을 참인 진술, 즉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체계성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판단 주체는 자신의 새로운 판단이 기존의 다른 판단들과 일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을 줄 경우, 판단들의 체계 자체를 전면 수정하면서라도 새로운 판단을 판단들의 체계 속에 편입시키고자 한다.

판단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을 폐기할지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기준이 이렇듯 판단들 간의 체계성이라면, 판단들의 체계는 사실상 개별의 객관적 판단들에 선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칸트는 판단들의 체계-개별 판단의 관계를 유기체의 전체-부분에 빗대는데,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인식들을 그 전체 범위에서 조망한다면, 우리는 이성 이 전적으로 고유하게 처리하고 성취하고자 추구하는 것이 인식의 체계성, 즉 하나의 원리에 의한 인식의 연관성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 여기서 인식의 전체라는 것은 부분들의 특정한 인식에 선행하여, 각 부분들에게 각자의 위치와 나머지 부분들과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규정하는 조건들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A645/B673)

칸트가 여기서 “지성인식들”이라 부르는 우리의 개별적인 판단들은 기존의 다른 판단들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판단들과의 체계적 비교를 통해 비로소 하나의 판단으로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개별적 판단들을 다른 판단들로부터 고립시키지 않고 그것이 속한 “전체 범위에서 조망”한다면, 우리는 그것들 각각에 “인식의 전체” 내지 판단들의 체계가 “선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판단들의 체계가 개별의 객관적 판단들에 선행하는 것이라면, 주어진 판단들 전체를 비교하면서 판단들을 체계화하는 반성의 활동은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듯 주어진 판단들 전체를 비교하는 반성의 활동은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이는 표층적 반성이 심층적 반성에 의존해서만 그 목표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대상들을 비교해 개념을 만들고, 또 개념들을 비교해 판단을 만드는 반성 활동의 목표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판단들을 비교해 추론 및 판단들의 체계를 만드는 반성 활동에 힘입어서만 성취 가능한 목표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지성은 이성이 제공하는, 판단들 전체를 내다보는 전망에 준거하지 않고서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되는 판단 혹은 경험적 지식들을 만들 수 없다.⁴⁰⁾ 그렇다면 표층적 반성과 심층적 반성은 상호 독립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별개의 활동이라기보다는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요구되는 단일한 검증 절차의 분리 불가능한 측면들을 편의상 나누어 가리키는 여러 이름들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상들을 비교해 개념을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판단들 전체를 체계화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반성 활동은 판단 주체가 자신의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검증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그것들 모두는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반성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초월적 원리, 즉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반성 활동

40) Grier, 2001, ch.8.

일반의 원리로 ‘자연의 합목적성’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초월적 원리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자연의 합목적성이 초월적 원리라는 칸트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Ⅲ. 초월적-규제적 원리로서의 자연의 합목적성

『판단력 비판』 이전의 저작들에서 칸트는 우리의 반성 활동에 관한 논의를 산발적으로만 전개한다. 특히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것은 ‘초월적 논리학’의 두 부록(‘반성개념들의 모호성’, ‘순수 이성 이념들의 규제적 사용’)을 통해 따로 다루어질 뿐이며, 각각에서 언급되는 반성적 활동들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조차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⁴¹⁾ 그리고 이로 인해 대상들을 비교해 개념을 만드는 반성에서부터 판단들의 체계를 만드는 반성까지, 각종의 반성 활동들 전부가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검증의 절차라는 점은 거의 부각되지 못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 서론에서 이 같은 반성 활동 일반의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그에 대한 통합적 이론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감안할 때, 칸트가 반성 활동 일반의 원리로 이른바 ‘자연의 합목적성’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초월적 원리’, 즉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로 규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합목적성이 초월적 원리라는 칸트의 주장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연구자들은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는 칸트가 이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초월적 원리로 언급한 바 있는 “자연의 합법칙성” 이외의 원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칸트가 자연의 합법칙성과 자연의 합목적성을 각각 ‘구성적 원리’와 ‘규제적 원리’라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든다.⁴²⁾ 그들에 의하면, 전자가 경험적 지식을 ‘구성’하는 원리인 반면 후자는 그렇게 구성된 경험적 지식을 학문적 수준으로 고양하는 추가적 활동을 ‘규제’하는 원리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연의 합목적성은 규제적 원리로서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초월적’이라는 용어와 ‘규제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애초에 양

41) Lonoguenesse. 2004, pp.203-4.

42) Guyer, 1997, p.41.

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⁴³⁾

그러나 필자가 해석하기에, 자연의 합법칙성이 구성적 원리라는 말은 그것이 경험적 지식을 위한 대상 세계로서의 자연을 구성하는 원리라는 뜻이지, 그것만으로 우리의 경험적 지식이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자연의 합법칙성이 대상 세계로서의 자연이 우리 앞에 주어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원리라는 의미에서 자연을 구성하는 원리라면, 자연의 합목적성은 그렇게 주어진 자연에 대한 우리의 논리적 탐구 내지 반성 활동 일반을 인도하는 규범이다. 또 그런 한에서 자연의 합목적성 또한 자연의 합법칙성과 더불어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이번 장의 목표이다.

1. 자연의 합법칙성 — 대상 세계의 ‘구성’ 원리

자연의 합법칙성에 관한 칸트의 주장은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지성개념들의 연역’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이번 절에서는 칸트의 이 ‘연역’을 분석함으로써 자연의 합법칙성에 관한 그의 주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여기서 연역이란 ‘권리의 증명’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토지 B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을 보이는 일)을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임을 지적하기로 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칸트가 증명하려고 하는 “순수 지성개념들”, 다시 말해 범주들의 권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다. 범주들은 어떤 분쟁에 휘말려 있는 것일까?

칸트가 보이고자 하는 범주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개념이 권리를 갖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연역’의 초입에서 칸트는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개념들은 권리를 갖는데 반해, 행운이나 운명처럼 우리의 사변적 상상에서 비롯하는 개념들은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

43) Ralph P. Horstmann, “Why Must There Be a Deduction?”, *Kant’s Transcendental Deductions*, pp. 157-176.

우리는 일단 경험 개념들을 어느 누구의 이의 제기 없이 사용하고 있고, 연역 없이도 그런 개념들에게 고유한 뜻과 상상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의 객관적 실재성을 증명해 주는 경험을 항상 직접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또한 거의 관용[寬容]으로써 통용되면서도 때때로 그것이 그런 권리를 갖는가 하는 權利問題에 의해 도전을 받는 **행운**이니 **운명**이니 하는 등의 부당한 개념들도 있다. 우리는 이런 개념들의 연역이 문제가 되면 적지 않은 곤경에 빠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개념들의 사용 권한을 분명하게 해주는 어떤 분명한 권리 근거도 경험으로부터나 이성으로부터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84/B116-7)

이렇게 보면 공의 개념은 던지거나 찰 수 있는 구형(球形)의 물체들에 대한 직접적 관찰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경험적 개념으로서 실제 감각적 대상들을 지시체로 갖는다. 현실에는 공의 개념 아래 포섭되는 사물들이 존재하며, 이는 각종의 공을 보고 만지고 던지고 차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증명된다. 그러나 예컨대 운명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 운명의 경우, 그 개념에 부합하는 사태,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초자연적인 힘 같은 것은 최소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운명의 개념은 감각적 관찰이 아니라 사변적 상상을 출처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나 유효할 뿐 현실적으로는 공허한 개념이다. 칸트의 이런 비교로부터, 우리는 개념이 권리를 갖는다는 말은 그것이 감각적 대상들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지닌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칸트가 범주들의 어떤 권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분명하다. 그는 범주들의 ‘연역’을 통해 그것들이 시공간 상의 감각적 대상들에 적용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그는 인과의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데, 그의 이런 시도는 명백히 인과에 대한 흄의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흄에 의하면, 세계에는 시간상에서 우연히 연쇄하는 사건들만이 있을 뿐 인과와 같은 필연적 관계는 없으며, 그것은 다만 인간의 습관 및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다. 칸트가 흄의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그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은 아래의 대목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원인이라는 개념을 예로 들면, 이 원인 개념은 어떤 것 A에 따라 전혀 다른 것 B가 규칙에 따라 정립되는 종합의 한 특수한 방식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현상들이 그러한 어떤 것을 함유해야 하는 것인가가 선험적으로는 명료하지 않다. [...] 따라서 혹시 그러한 개념은 전혀 공허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상들 가운데 어느 것에서도 대상에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선험적으로 생긴다. (A90/B122)

그러나 칸트가 인과의 문제에 관한 흄의 의문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칸트는 감성과 지성이라는 능력의 차이에 관한 자신의 관점에 따라 흄의 문제의식을 변형한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감각적 대상들은 우리의 감성에 의해 대상으로서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주어진 모든 감각적 대상은 필연적으로 감성적 인식의 형식인 시공간에 종속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성은 감성을 통해 이미 주어진 감각적 대상들에 대해 사고하는 능력일 뿐이므로, 그것들이 지성적 인식의 형식인 범주들에 종속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칸트는 혹 감각적 대상들의 세계에는 인과의 범주에 부합하는 사태는 없는 것 아닌지, 또 그렇다면 인과의 범주는 감각적 대상들에 적용될 권리를 갖지 않는 것 아닌지 자문한다.

칸트는 이처럼 흄과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설정함으로써 결국 그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는다. 미리 말하자면, 칸트는 감성이 비록 “사고의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A91/B123)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성의 범주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시공간 상에 감각적 대상들을 표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령 그는 만일 우리에게 인과의 범주가 없었다면 시간적 연쇄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으리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시간적 연쇄는 인과 범주의 적용을 전제로 형성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인과의 범주는 시간상에서 연쇄하는 감각적 대상들에 적용될 권리를 가진다. 즉 칸트는 감성적 인식의 형식 자체가 범주들의 인도 아래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들은 감각적 대상들에 적용될 충분한 권리를 가진다고 결론 짓는다.

이 같은 복잡한 주장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시공간 형식의 형성에 관한 칸트의 설명부터 참고해야 한다. 크게 두 가지를 언급

할 수 있다. 첫째, 칸트는 시공간이 감성적 표상(직관)의 형식일 뿐 아니라 그 자신 다시 감성적 표상이라고 주장한다. 즉 “시공간의 순수한 형식 그 자신도 **순수한 직관**이라고 일컬어진다” (A20/B 34).⁴⁴⁾ 우리가 공간의 구획을 의식할 때는 가상의 격자를, 또 시간의 흐름을 의식할 때는 가상의 직선을 동원한다는 것을 고려해보자. 이는 시공간이 사실상 어떤 이미지 혹은 감성적 표상으로서만 우리에게 의식된다는 것을 알려준다.⁴⁵⁾ 굳이 비유하자면, 상자가 다른 상품들을 포장하는 일종의 형식이기는 해도, 상자 자체만 따로 놓고 보면 그것 역시 하나의 판매용 상품이라는 점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공간은 대상들을 감각적으로 표상하는 일에 필요한 인간 감성의 형식인 동시에, 감각적 대상들과의 그런 관계를 제쳐 두고 그 자체로 보면 마찬가지로의 감성적 표상이다.

이어서 둘째, 칸트는 시공간을 부분적인 감성적 표상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통일적인 감성적 표상으로 이해한다. “공간과 시간은 단지 감성적 직관의 **형식**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잡다를 함유하는) **직관들** 자체로서 그러므로 그 직관들 내의 잡다의 **통일** 규정과 함께 선형적으로 표상된다” (AB160). 그리하여 칸트는 시공간 형식은 우리의 감성에 태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 표상들을 연결하는 인간 능력인 ‘상상력’의 활동을 통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상력은 기본적으로 사물이나 사건의 감각적 이미지를 ‘재생’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능력이며, 습관적 연합의 작업이나 사물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는 작업, 사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머릿속에 그리는 작업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 같은 재생 활동들은 모두 시공간 형식상에서 일어나며, 따라서 시공간의 감성적 표상들을 연결하는, 상상력 자신의 더 근원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현상들의 필연적인 종합적 통일의 선형적 근거가 됨으로써 현상들의 이런 재생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무엇’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현상들이 사물들 그 자체가 아니고 결국은 내감의 규정에

44) 시공간은 그것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지는 감성적 표상인 “경험적 직관”들과 달리 색깔, 냄새, 촉감을 비롯한 감각자료를 함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 직관”이라 불린다.

45) B154.

귀착하는 우리 표상들의 한낱 놀이라는 사실을 성찰한다면, 이내 이 ‘무엇’에 이른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선형적이고 진정으로 순수한 직관들조차, 그것들이 재생의 일관된 종합을 가능하게 하는 잡다의 결합을 함유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인식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면, 상상력의 이 종합 또한 모든 경험에 앞서 선형적인 원리들 위에서 정초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들의 재생 가능성이 반드시 전제하는바) 모든 경험의 가능성에도 기초로 놓여 있는 상상력의 순수한 초월적 종합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A101-2)

여기서 칸트에 의하면, “우리의 선형적이고 진정으로 순수한 직관”인 시공간은 “잡다의 결합을 함유”하는 통일적인 감성적 표상으로서, 그 잡다한 부분들을 결합하는 상상력의 “순수한 초월적 종합” 작용의 산물이다. 어제에서 오늘까지의 시간 흐름을 의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어제라는 한 점으로부터 오늘이라는 한 점으로 가상의 직선을 이어가는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내가 만약 선행한 것들(그러니까 직선의 처음 부분들, 시간의 선행한 부분들, 또는 잇따라 표상된 단위들)을 그때 그때 생각 속에서 잃어버리고, 내가 후속하는 것들로 나아가면서 선행한 것들을 재생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의 전체 표상은, ... 심지어는 **공간·시간과 같은 진정으로 순수한 최초의 근본표상도 생길 수 없을 것이다**” (A102, 필자의 강조).

시공간의 형식을 형성하는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 활동의 성격은 감성적 표상들을 연결하는 상상력의 작용 일반이 통상 두 가지 양상에서 전개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상상력은 주체의 습관이나 경향에 따라 자의적인 방식으로 감성적 표상들을 결합하곤 한다. 예를 들어 마당의 닭을 보고 백숙을 연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 통통한 닭을 본 모든 사람이 백숙 생각에 침을 흘려야 한다는 법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닭의 감성적 표상과 백숙의 감성적 표상을 연결하는 일은 우연적 양상에서 행해진다.

그러나 상상력의 활동은 이와 달리 필연적인 양상에서 전개되기도 한다. 상상력이 ‘규칙으로서의 개념’에 따라 감성적 표상들을 연결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칸트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개념은 형식상 항상 보편적인 어떤 것이고, 규칙으로 쓰이는 것이다. 예컨대, ‘물체’라는 개념은 그것을 통해 생각되는 잡다의 통일에 의한 개념으로서 외적 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규칙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 개념은 오로지 그것이 주어진 현상들에서 그 잡다의 필연적 재생을, 그러니까 주어진 현상들에 대한 의식에서 종합적 통일을 표상함으로써만 직관의 규칙일 수가 있다. 이를테면 물체 개념은 우리 밖의 어떤 것에 대한 지각에서 연장[連章]의 표상을, 그리고 이와 함께 불가투입성·형태 등의 표상을 필연적이게끔 한다. (A106)

말하자면 우리는 부피와 형태를 가진 한 물체가 다른 그런 물체를 빗이 유리를 통과하듯 아무 저항 없이 통과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령 책상 위에 연필을 내려놓을 때 그 연필이 책상을 그대로 지나쳐 땅으로 떨어지는 광경은 떠올리지 않는다. 바꾸어 말해, 물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물체의 연장성(부피와 형태를 가짐)의 지각에는 반드시 그 불가투입성(다른 물체를 통과시키지 않음)의 지각이 잇따른다. 이처럼 개념은 우리의 지각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지정해주는 ‘규칙’의 역할을 한다. 감성적 표상들을 연결하는 상상력의 활동은 개념에 의해 인도될 경우 필연적 양상을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연적 양상을 보인다.⁴⁶⁾

이로써 우리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개념은 주지하듯 “가능한 판단들의 술어”(A69/B94)로서 대상을 지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금속은 모두 물체다’라는 판단에서 물체의 개념은 금속의 개념에 속하는 많은 감각적 대상들을 규정하는데 쓰이며, 이것이 논리적 표상으로서의 개념의 가장 고유한 기능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개념은 감성적 표상들을 연결하는 일의 규칙으로서 상상력을 인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개념의 이런 기능은 예컨대 집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야만인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일지라도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명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의 형태를 표상하지 못하리라는 데서 잘 드러난다.⁴⁷⁾

46) Longuenesse, 1998, pp.117-8.

47) *Logik*. introd, IX, 33.

그런데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 즉 시공간의 표상들을 연결하는 활동은 분명 필연적 양상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우리는 시간을 연쇄적인 것으로서만 의식할 수 있지 띄엄띄엄 단절된 채로 있는 시간을 표상하지는 못한다. 시점 a와 시점 b 사이에는 언제나 또 다른 시점 x가 있으며, 이는 시간이 오직 직선으로만 표상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이 이처럼 필연적 양상에서 전개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것이 개념의 인도에 따라서 행해지는 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개념은 ‘물체’, ‘집’ 등의 경험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경험적 개념은 시공간 상에 표상된 감각적 대상들에 대한 반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시공간 형식은 경험적 개념의 산출에 우선해 형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에 의하면, 시공간의 형식을 형성하는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을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성에 선형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개념들 곧 범주들뿐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칸트는 다름 아닌 인과의 범주가 시간적 연쇄와 관련된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을 인도한다고 주장한다.⁴⁸⁾ 즉 시간상의 연쇄는 인과 범주의 인도에 따른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의 산물이라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그가 ‘연역’의 결론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곧 사건 자체는, 가능한 지각의 면에서 볼 때, **인과 관계**의 개념 아래 놓여 있다”(B163)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이다. 연속체로서의 시간은 상상력이 인과 범주의 인도 아래 시간의 순수 직관들을 연결해 만든 산물이며, 그러므로 사건들을 시간적 연쇄의 형식 아래서 지각하는 것 자체는, 혹은 사건들에 대한 “가능한 지각” 자체는 “인과 관계의 개념 아래 놓여” 있다.

이제 우리는 범주들 또한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그것들은 논리적 표상인 개념들을 결합하고 이로써 감각적 대상들을 지적으로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라는 판단은 물체의 개념을 실체의 범주 아래, 가분성의 개념을 속성의 범주 아래 포섭하고, 또 이를 통해 실체-속성의 관계에 따라 물체의 개념과 가분성의 개념을 결합한 결과이다.

48) B152.

‘태양이 돌을 따뜻하게 만든다’라는 판단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 우리는 태양의 개념과 뜨거워짐의 개념을 인과의 범주를 매개로 결합하면서 태양과 뜨거워짐 각각을 원인과 결과로 규정한다. 이것이 지적 표상으로서의 범주들의 본래 역할이며, 그러므로 범주들의 이런 사용을 그것의 ‘본격적 사용’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둘째, 범주들은 시공간의 감성적 표상들 곧 순수 직관들을 결합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것들은 시공간 형식 자체의 형성을 위한 규칙의 역할, 그러니까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개념들을 결합하는 범주들의 역할과 구별하여 범주들의 ‘예비적 사용’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물론 시공간 질서는 인간의 감성적 인식의 형식일 뿐 지성적 인식의 형식인 범주들과는 무관하게 그저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칸트에 의하면, 그것은 범주들을 규칙으로 행해지는 인간의 능동적 인식 활동인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을 통해, 즉 “범주들에 따라서 직관을 종합” (B152)하는 활동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다.

칸트는 범주들이 개념들을 결합하고 감각적 대상들을 지적으로 규정하는 기능 뿐 아니라 시공간의 순수 직관들을 연결하는 활동을 위한 규칙, 다시 말해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을 위한 규칙으로도 기능한다는 사실로부터 범주들의 권리를 ‘연역’해낸다. 시공간의 형식 자체가 범주들의 예비적 사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범주들은 감각적 대상들을 시공간 형식 아래서 표상하기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시공간 상에서 표상되는 모든 감각적 대상들은 아직 범주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범주들에 종속한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범주들은 시공간 상의 감각적 대상들에 적용될 충분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칸트는 가령 한 사물의 상태가 A에서 B로 시간상에서 ‘변화’함을 의식하는 것은 그 사물에 영향을 주는 외적 조건 X 혹은 변화의 ‘원인’ X를 상정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⁴⁹⁾ 물론 한 사물의 상태 변화를 의식할 때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본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변화를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인과의 범주를 예비적인 방식으로나마 사용하고 있기

49) Longuenesse, “Kant on Causality”, 2004 참조.

때문이다. 한 사물의 상태 변화를 목격할 경우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게 되는 까닭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시간적 연쇄 자체가 실은 인과 범주에 의존해 표상되는 것인 한에서, 시간상에서 표상되는 모든 감각적 대상들은 이미 인과의 범주에 종속한다. 즉 인과의 범주는 우리가 감각적 대상들을 시간적 연쇄 속에서 표상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것들에 적용될 권리를 갖는다.

‘순수 지성개념들의 연역’에서 칸트는 범주들을 통해 현상들을 규정할 권리의 문제와 자연의 합법칙성의 문제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⁵⁰⁾ 그가 정의하는바 자연이 “모든 현상들의 총괄”(B163), 바꾸어 말해 감각적 대상들이 시공간 형식에 힘입어 이루는 총집합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런 동일시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상에서 연쇄하는 모든 현상들이 인과 범주의 인도 아래 있다는 말과 그런 현상들의 총체인 자연이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이다. 우리의 지성은 범주들을 통해 자연, 즉 대상 세계 전체를 ‘구성’하며, 그리하여 자연은 합법칙적 질서를 갖추게 된다. 칸트가 자연의 합법칙성을 초월적 원리로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자연은 지성의 범주들이 보증하는 합법칙적 질서를 갖추고 있는 한에서만 우리에게 그 시공간적 형식 속에서 대상 세계로 표상될 수 있다. 자연의 합법칙성은 경험적 지식을 위한 대상 세계로서의 자연을 구성하는 인간 인식 활동의 원리 곧 ‘구성적’ 원리이며, 따라서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칸트의 말대로 자연이 합법칙적 질서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화하는 특수한 법칙들이 우리에게 즉각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모든 시간적 연쇄가 정말로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을지언정, 우리는 사건들의 연이은 발생이나 사물들 상태 변화를 목격하면서도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즉 그런 시간적 연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지를 한눈에 알지 못한다. 달리 말하자면, 자연은 범주들의 예비적 사용을 통해 구성되어 있을 뿐 그렇다고 우리가 곧바로 범주들을 본격적으로 사용해 감각적 대상들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과가 어느

50) B163-4.

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임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대해 칸트는 ‘순수 지성 개념들의 연역’ 말미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면에서 범주들에 종속할 수밖에 없고, (순전히 자연 일반으로 본) 자연(곧, 形式上으로 본 自然)은 그것의 필연적인 법칙성의 근원적 근거인 범주들에 의존한다. 그러나 순전한 범주들으로써 현상들에게 선험적으로 법칙들을 지정하는 순수한 지성 능력도 공간·시간상의 현상들의 법칙성인 **자연 일반**이 의존하고 있는 법칙들 너머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특수한 법칙들은 경험적으로 규정되는 현상들에 관한 것이므로, 선험적 법칙들에서 **완벽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것들이 모두 선험적 법칙들 아래에 종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B165)

이 인용문에 등장하는 “자연 일반”은 경험적 지식을 위한 대상 세계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런 대상 세계를 구성하는 합법칙적 질서를 가리킨다.⁵¹⁾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 세계로서의 자연이 합법칙적 질서를 띠고 있다는 데서 개별의 특수한 법칙들이 곧장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자연이 인과율(‘모든 변화에는 원인이 있다’)이라는 “선험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해가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지, 왜 바닷물이 낮에는 육지로 밀려오고 밤에는 멀리 빠져나가는지까지를 전부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간상에서 잇따르는 현상들을 감성적으로 표상하는 일 이외에 관찰, 실험, 추리, 학습, 토론 등 자연을 탐구하는 지적 노력을 다함으로써만 마침내 그런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는 대상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인 자연의 합법칙성의 원리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탐구의 원리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자연의 합법칙성은 유일의 초월적 원리가 아니며, 따라서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51) 질료로서의 자연과 형식으로서의 자연. 전자가 존재자들의 집합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그런 존재자들의 ‘본성’ 같은 뜻이다. A419/B446.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에 관한 논의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보이겠지만, 칸트가 『판단력 비판』 서론에서 ‘자연의 합목적성’을 또 다른 초월적 원리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2. 자연의 합목적성 — 반성 일반의 내재적 ‘규범’

앞 절에서는 칸트가 제시하는 이른바 ‘자연의 합법칙성’이 어떤 의미에서 초월적 원리, 즉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인지를 확인하였다. 자연은 지성의 선험적 개념인 범주들이 제공하는 합법칙적 질서를 갖추고 있는 한에서만 우리에게 대상 세계로서 표상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의 합법칙성은 자연을 ‘구성’하는 인간 활동의 원리로서,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경험적 지식을 위한 대상 세계를 마주하지조차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경험적 지식의 소유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연의 합법칙성은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는 다른 한편 이 같은 자연의 합법칙성을 유일한 초월적 원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경험적 지식의 획득 과정을 감안하면 이것은 자명해 보인다. 가령 자연은 인과 범주의 인도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인과법칙들을 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특수한 인과법칙들을 즉각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자연을 탐구하는 꾸준한 지적 노력에 의해서만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자연의 합법칙성은 경험적 지식을 위한 대상 세계로서의 자연을 구성하는 활동의 원리일 뿐 그렇게 구성되고 표상된 자연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경험적 지식을 만드는 우리의 사고 활동의 원리는 아니다. 그러므로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는 자연의 합법칙성 이외에, 자연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사고 활동의 원리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력 비판』 서론은 자연의 합법칙성과 상보적 관계에 있는 이런 또 다른 초월적 원리, 즉 자연 탐구의 사고 활동인 ‘반성’의 원리를 규명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⁵²⁾ 특수한 인과법칙들을 찾기 위한 활동으

로서의 반성 및 그 원리에 관한 다음의 언급을 살펴보자.

지성은 선형적으로 자연의 보편적 법칙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 법칙들이 없다면 자연은 전혀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터이다. 그러나 지성은 이것 외에도 자연의 모종의 질서를, 지성에게는 오로지 경험적으로만 알려질 수 있는, 그리고 지성에 대해서는 우연적인, **자연의 특수한 규칙들**에서 필요로 한다. ... 그러므로 지성은 ... 이 **경험적인 이른바 법칙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곧 이러한 법칙들에 따라서 하나의 인식할 수 있는 자연의 질서가 가능하다는 **선형적 원리를 자연에 대한 모든 반성의 근거에 두지 않을 수 없다.** (V184-5; 필자의 강조)

여기서 칸트는 자연의 합법칙성이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필요한 유일한 원리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자연은 물론 범주들의 인도 아래 인과율이라는 “선형적 법칙”을 갖추고 있는 한에서만 우리 앞에 “경험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자유낙하의 법칙, 행성 운동의 법칙, 보일 법칙(‘공기는 탄성이 있다’)처럼 선형적 법칙으로서의 인과율을 예화하는 “특수한 규칙들” 내지 “경험적 법칙들”은 주어진 감각적 대상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 비로소 발견된다.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이런 특수한 인과법칙들을 파악하는 데서 성립하며, 따라서 자연의 합법칙성의 원리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모든 반성의 근거”로 기능하는 또 다른 원리에도 의존한다. 앞으로 밝히겠지만, 그런 반성의 원리로 제시되는 것이 다름 아닌 ‘자연의 합목적성’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판단력 비판』 서론에서 반성은 다양한 특수자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보편자를 찾는 활동으로 정의된다.⁵²⁾ 이에 속하는 활동으로는 특수한 경험적 법칙들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경험적 법칙을 찾는 일(“경험적 법칙들의 체계적 연관”), 여러 개념들을 상위의 개념 아래 포섭함으로써 개념들의 연관 관

52) XX203. 칸트가 자연의 합목적성을 “자연의 탐구에 실마리로 쓰일 원칙”이라 부른다는 데 주목하자.

53) V179.

계를 만드는 일(“경험적 개념들의 가능한 연관”), 자연계의 유와 종을 분류하는 일(“자연의 산물들을 유와 종들로 구분”) 등이 주로 거론된다.⁵⁴⁾

이런 다양한 종류의 반성들은 특수자들로부터 보편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만 유사한, 혹은 서로 유비적으로만 관련될 뿐인 별개의 활동들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보다는 상이한 관점에서 기술된 단 하나의 사고 활동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념, 법칙, 유와 종이 사실상 서로 교환 가능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100°C가 되어도 물이 끓지 않으면 그것이 물이라는 것을 의심하는데, 이는 물의 개념이 ‘물은 100°C에서 끓는다’라는 법칙을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⁵⁾ 또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동물의 개념과 그 하위 개념인 인간의 개념은 동물과 인간이라는 유와 종의 분류를 함축한다. 그렇다면 경험적 법칙들의 상하 관계를 정립하는 작업, 개념들을 서로 연관 짓는 작업, 동식물의 유와 종을 분류하는 작업은 각각 자연과학, 논리학, 분류법의 관점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일 뿐 우리의 경험적 지식들을 체계화하는 단일의 활동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II장에서 보였듯이 이런 체계화의 활동이 주어진 경험적 지식을 학문적 수준으로 고양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의 성립 자체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즉 그것은 감각적 대상들을 여러 경험적 개념들 및 선험적 개념들로 규정하는 기초적인 과정에서부터 요구되는 활동이다. 칸트가 이런 생각을 견지한다는 것은 연구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판단력 비판』 서론의 여러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특수한 경험적 법칙들을 체계화하는 활동과 관련된 서술을 확인해보자.

자연의 잡다[다양]한 형식들이 있고, 말하자면 그 만큼의 보편적인 초월적 자연개념들의 변양들이 있는바, 이것들은 순수 지성이 선험적으로 세운 저 법칙들에 의해서는,—이 법칙들이란 단지 (감관의 대상인) 자연 일반의 가능성에만 관여하기 때문에—무규정적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것들을 위

54) 순서대로 XX203; XX217; V185.

55) Ginsborg, 1988, p.190.

한 법칙들 또한 있어야만 한다. 이 법칙들은 경험적인 것으로 우리의 지성의 통찰에 따르는 우연적인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자연의 개념도 그것을 요구하는 바와 같이) 법칙이라고 일컬어져야 한다면, 그것들은, 비록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잡다한 것을 통일하는 하나의 원리로부터 나온 필연적인 것이라고 여겨져야만 한다. (V179-180)

칸트에 의하면, 우리의 경험적 법칙은 “잡다한 것을 통일하는 하나의 원리로부터 나온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한에서만, 바꾸어 말해 여타의 경험적 법칙들과 더불어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한에서만 비로소 법칙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개별의 경험적 법칙은 우리의 감각적 체험 및 그 단순한 일반화에 준거해서는 필연적 법칙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오직 다른 경험적 법칙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뒷받침될 경우에만 그런 자격을 획득한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체계화의 작업은 주어진 경험적 법칙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는 데 국한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경험적 법칙의 최초 발견 과정에서부터 필요하다.

개념들의 연관 관계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말할 수 있다. 각각의 개별적 개념들에는 그것들 상호 간의 연관 관계가 집약되어 있으며, 그런 만큼 개별 개념의 형성은 개념들의 체계화 작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개념 형성의 과정을 상기해보자. 예를 들어 우리는 귤, 사과, 배를 비교하면서 저마다의 모양과 색, 질감을 추상하고 대신 ‘먹을 수 있는 열매’라는 공통점만 보존함으로써 과일의 개념을 얻는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 ‘둥근 형태’라는 공통점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둥근 것’이라고 개념화하지는 않는데, 이는 우리가 음식, 채소 등등의 개념들이 맺고 있는 연관 관계를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기초로 감각적 대상들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개념들의 연관 관계는 감각적 대상들의 여러 공통점 가운데 무엇이 개념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지정해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연관 짓는 활동은 개별 개념의 형성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우리는 칸트가 반성을 “주어진 표상들을 다른 표상들과 … 그에 의해 가능한 개념과 관련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일”(XX211)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판단력 비판』 서론에서 도입하는 반성이란 말하자면 개념들의 상호 연관 관계를 만드는 작업인 동시에 개별 개념 자체를 만드는 활동이다. 이것은 『논리학』에서 개념 형성의 작업으로 언급되는 ‘비교, 반성, 추상’과 동일한 활동으로서, 칸트는 제3비판에서 그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활동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그는 반성을 “경험적이지만 보다 보편적인 개념들로 올라감으로써 경험적인 개념들과 그 개념들 상호간의 연관에 이를 수 있도록”(XX211n)하는 작업으로 서술하면서, 개별 개념 형성의 활동과 개념들의 연관 관계를 만드는 활동을 동일시한다.

요컨대 『판단력 비판』 서론에서 다루어지는, 법칙들을 체계화하거나 개념들을 상호 연관 짓는 반성의 활동은 주어진 경험적 지식을 학문적 수준으로 조직하는 데에만 필요한 작업이 아니다. 그것들은 감각적 대상들로부터 개념을 만들거나 개념들을 비교해 판단을 만드는 등의 기초적 반성이 완료된 다음에야 행해지는 이차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기초적 반성의 이면에서 항상 수행되고 있는 심층의 활동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판단 주체에 의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되는 판단이라는 특징을 갖는데(I 장), 각종 층위의 반성 활동들 전부는 판단 주체가 자신의 판단을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간주하기에 앞서 반드시 밟아야 하는 일종의 합리적 ‘검증’ 절차로서,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하다(II 장).

이제 우리는 칸트가 『판단력 비판』 서론에서 (얼핏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어 보이는) 체계적 반성 활동의 원리로 ‘자연의 합목적성’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초월적 원리, 즉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로 규정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경험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반성적 노력이 궁극적으로 체계화의 반성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그런 체계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다. 칸트가 자연의 합목적성을 “자연에 논리를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XX211n)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미에서이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자연의 합

목적성이라는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반성하는 한에서만 자연현상들을 개념화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 지식을 체계화하는 반성의 활동이 사실상 경험적 지식의 성립 자체에서부터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원리로 제시되는 자연의 합목적성이 대체 무엇인지, 또 왜 체계화의 반성 활동이 그런 원리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에 관한 칸트의 주장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자 한다.

『판단력 비판』 서론의 한 대목에서 칸트는 자연의 합목적성을 “우리 인식능력에 대한 자연의 부합”(V185)으로 정의한다. 즉 그는 자연이 합목적적이라는 말을 자연이 체계적 반성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인식능력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정교한 체계로서 구조화되어 있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연은 가장 짧은 길을 간다’,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자연은 형식들의 다양성에서 비약을 범하지 않는다’와 같은 고전적 정식들이 바로 그런 자연의 합목적성을 표현하는 명제들로서 언급된다.⁵⁶⁾

그런데 칸트는 우리가 자연의 합목적성을 ‘가정’하는 한에서만 반성 활동 일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자연에 대한 모든 반성의 근거”에 있는 원리로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대목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인식능력에 대한 자연의 이러한 부합은 판단력에 의해,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에 따라 자연에 대해 반성하기 위해서, 선험적으로 가정된다. … 우리는 이 합목적성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경험 법칙들에 따르는 아무런 자연의 질서도, 그러니까 이 법칙들을 가지고 매우 다양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경험과 그에 대한 탐구를 위한 아무런 실마리도 가질 수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⁵⁷⁾ (V185)

칸트가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를 이처럼 “자연에 대해 반성하기 위

56) XX210.

57) ‘voraussetzen’을 ‘가정’으로 번역한 것은 필자.

해” 반드시 필요한 가정으로, 바꾸어 말해 “자연에 대한 탐구를 위한 실마리”로 간주하는 배경에는 체계화의 작업을 토대로 경험적 지식을 만들려는 우리의 인식능력과 경험적 지식을 위한 대상 세계로서의 자연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 괴리는 자연이 상호 이질적인 경험적 법칙들에 의해 지배되는 “조야하고 혼돈적인 집합”(XX209)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데서 발생한다. 자연은 범주들이 보증하는 합법칙적 질서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발견되는 특수한 경험적 법칙들이 무수히 많고 다양한 탓에 도무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칸트 자신의 말로 하자면, “무릇 경험적 법칙들의 다양성과 이종성이 너무나 커서, … 이 경험적 법칙들 자신을 하나의 공통적 원리 아래서 친족성의 통일을 갖게 하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문제는 우리 눈에 비치는 대로의 혼란스러운 집합을 자연의 본모습으로 생각하는 한, 경험적 지식들의 체계 혹은 판단들의 체계는 대상 세계로서의 자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자의적 구조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그 경우 체계성은 “경험적 진리의 충분한 징표”(A651/B679), 즉 진리 추정의 최종 근거의 자격을 상실한다.⁵⁸⁾ 더불어 체계화의 반성은 자의적인 지적 망상에 불과한 활동으로 취급될 것이며, 그에 의존하는 모든 반성 또한 “한낱 되는 대로 행해지는 맹목적인 것”(XX212) 내지 “헛된 일”(XX213)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일체의 반성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내적 동기를 잃게 될 것이다. 칸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자연이 … 자기의 경험적 법칙들의 큰 상이성 때문에 자연형식들 가운데서 종과 유들의 일치성과 단계적 질서를 끄집어내려는 모든 비교, 또는 적어도 대부분의 비교가 헛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지각들을 비교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자연형식들에 공통적인 것의 경험적 개념에 이르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다. (XX213)

58) II장 2절.

따라서 칸트에 의하면, 일체의 반성 활동은 자연이 (비록 우리 눈에는 혼란스러운 집합으로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구조화되어 있으리라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같은 가정 없이는 “지각들을 비교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자연형식들에 공통적인 것의 경험적 개념”을 만드는 기초적인 반성 활동조차, 다시 말해 개념 형성의 ‘비교, 반성, 추상’ 활동조차 수행하지 못한다. 즉 우리는 자연이 합법칙적 질서 이상의 합목적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는 한에서만 대상들을 비교해 개념을 만드는 반성부터 판단들의 체계를 수립하는 반성에까지 이르는 각종의 반성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다.

요컨대 칸트는 우리가 자연의 합목적성을 가정함으로써만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필요한 각종 반성 활동들의 내적 동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가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를 초월적 원리, 즉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로 규정하는 이유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칸트의 이런 주장에는 어떠한 존재론적 함의도 없다는 사실이다.⁵⁹⁾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주장은 ‘자연이 실제로 우리 인식능력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나의 체계로서 조직되어 있다’가 아니다. 대신 그의 주장은 ‘자연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연에 대한 반성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한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리라고 가정해야만 한다’에 가깝다. 다음의 대목에서 칸트의 논조를 확인할 수 있다. 칸트는 자연의 합목적성이 인간 인식능력의 “논리적 사용을 위한 원리일 뿐”임을 강조한다.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에 의해[즉,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에 의해; 필자] 자연은 경험적 법칙들에 따르는 체계로 생각되지만, 이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는 한낱 판단력의 논리적 사용을 위한 원리일 뿐으로, 물론 그 기원으로 보면 하나의 초월적 원리이지만, 단지 선형적으로 다양한 자연이 경험적 법칙들 아래서 하나의 논리적 체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위한 원리일 뿐인 것이다. (XX214)

59) Allison, 2004, p.29.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칸트가 자연의 합법칙성과 구별되는,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또 다른 초월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에서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절에서 설명했듯 자연의 합법칙성은 경험적 지식을 위한 대상 세계인 자연을 ‘구성’ 하는 활동(상상력의 초월적 종합 내지 범주들의 예비적 사용)의 원리이다. 자연은 범주들이 제공하는 선험적 법칙들에 따라 그것을 구조화하는 인간 활동을 통해 우리 앞에 비로소 표상되는 것이며, 따라서 대상 세계로서의 자연은 반드시 어떤 합법칙적 질서를 내장한다. 그러나 이로써 그런 합법칙적 질서를 이루는 각각의 특수한 법칙들이 즉각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한 법칙들을 발견하여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체계적인 반성이 요구되는데, 이런 체계적 반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다름 아닌 자연의 합목적성이다. 즉 자연의 합목적성은 대상 세계로서의 자연을 구성하는 원리는 아니지만,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요구되는 자연탐구의 활동을 인도하는 규범,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의 반성 활동을 ‘규제’ 하는 원리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 곧 초월적 원리이다.

결론

본고에서는 칸트가 제시하는바 자연의 합목적성이 어떤 의미에서 초월적 원리, 즉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 이 같은 목표에 따라 칸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첫째,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그것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이라는 판단 주체의 확신을 동반하며, 그런 만큼 자신의 판단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진술인지를 합리적으로 검증하려는 판단 주체의 노력을 요구한다. 둘째,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검증의 절차로서 수행되는 사고 활동이 바로 개념, 판단, 추론 등의 논리적 표상들을 만드는 여러 층위의 ‘반성’ 들인데, 각종의 반성 활동들은 궁극적으로는 판단들 전체를 비교해 체계화하는 반성의 활동에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판단 주체는 경험적 지식을 위한 대상 세계인 자연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신의 인식적 목적에 부합하게끔 조직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한에서만 체계화의 반성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자연을 체계적 이해를 불허하는 무질서의 집합으로 여기는 한에서는, 판단들의 체계를 자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자의적 구조물로, 또 그 같은 체계를 만들기 위한 반성 활동을 무의미한 작업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연이 판단 주체 자신의 인식적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리라는 가정은 반성 활동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내재적 규범이다. 요컨대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판단 주체가 자신의 판단을 합리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수행되는 사고 활동인 각종 반성을 토대로 형성되며, 자연의 합목적성의 가정은 이런 반성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하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 서론에서 자연의 합목적성이 초월적 원리, 즉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결국 그것이 개인의 기질이나 습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도입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개념, 판단, 추론, 체계의 논리적 형식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한에서는 반드시 자연을 하나의 체계로 가정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같은 가정은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 능력 자체에 근거하는 합리적인 믿음임을 입증하는 것이 제3비판 서론의 기획인 것이다.

이상 본고에서는 칸트가 『판단력 비판』 서론에서 펼치는, 자연의 합목적성이 초월적 원리라는 칸트의 주장에 대해 논하였다. 그러나 제3비판 서론과 관련해서는 이 외에도 중요한 논란거리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연의 합목적성이 자연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논리적 반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미적’ 반성, 다시 말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활동을 정초하는 데로까지 확장된다는 주장이다. 칸트는 자연의 합목적성과 미적 반성 사이의 이런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제3비판을 저술한 이유라고 언급하고 있으나,⁶⁰⁾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추후의 연구를 통해 이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0) V169-70. “이 관계[자연의 합목적성과 쾌·불쾌의 감정 내지 미적 반성: 필자]야말로 판단력의 원리 안에 있는 수수께끼이다. 이 수수께끼가 비판에서 이 능력을 위한 하나의 특수한 부문을 꼭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참고 문헌

I. 칸트 원전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1781, 1787)*, hrsg. v. R. Schmidt, Felix Meiner Verlag, Hamburg, 1990
-----, *Kritik der Urteilskraft(1790, 1793, 1799): Beilage: Erste Einleitung in die “Kritik der Urteilskraft” (Broschiert)*, hrsg. Heiner F. Klemme, Felix Meiner Verlag, Hamburg, 2006.

II. 원전 번역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순수 이성 비판 1,2』, 아카넷, 2006.
-----, -----, 『형이상학 서설』, 아카넷, 2012.
-----, -----, 『판단력 비판』, 2009.

III. 이차문헌

(1) 단행본

김광명, 『칸트 판단력 비판 연구』, 철학과 현실사, 2006.
백종현, 『존재와 진리: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근본문제』, 철학과 현실사, 2000.
장 마크 드루앵, 김성희 역, 『철학자들의 식물도감』, 알마, 2011.
토머스 헨킨스, 양유성 역, 『과학과 계몽주의』, 글항아리, 2011.

R. G. 콜링우드, 유원기 역, 『자연이라는 개념』, 이제이북스, 2004.

Allison, Henry E,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an Interpretation and defens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 *Kant's Theory of Taste : a Reading of the Critique of Aesthetic Judg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Essays on Ka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Förster, Eckart, ed. *Kant's Transcendental Deductions: The Three 'Critiques' and the 'Opus Postumum.'*, Standford, Calif.,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89.

Grier, Michelle, *Kant's Doctrine of Transcendental Illu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Guyer, Paul, *Kant and the Claims of Tas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Knowledge, Reason, and Taste: Kant's reponse to Hume*,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Hanna, Robert, *Kant and the Foundations of Analytic Philoso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Longeunesse, Béatrice, Charles T. Wolfe, trans, *Kant and the Capacity to Judge: Sensibility and Discursivity in the Transcendental Analytic of the Critique of Pure Reas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 *Kant on the Human Standpoi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Wayne Waxman, *Kant's Model of the Mind: a New Interpretation of Transcendental Ide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Zuckert, Rachel, *Kant on Beauty and Biolog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 2007.

(2) 논문

김기수, 「칸트의 미적 세계관은 비판적인가 탈비판적인가」, 『칸트연구』, 24집, pp.45-82, 2009.

박배형,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유희 - 칸트 미학의 한 문제」, 『美學』, 53집, pp.27-59, 2008.

심철민, 「칸트의 합목적성 개념과 그 선험론적 연역에 대한 고찰: 『판단력 비판』 두 서론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 논문, 1999.

Adams, R. M., “Things in Themselve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57(1997), pp.801-25.

Ginsborg, Hannah, “The Role of Taste in Kant’s Theory of Cognition”, Harvard University, 1988.

-----, “Lawfulness without a Law”, *Philosophical Topics* 25(1997), pp.37-81.

Guyer, Paul, “Reason and Reflective Judgment: Kant on the Significance of Systematicity”, *Noûs* 24 (1) (1990), pp.17-43.

Hanna, Robert, “Kant, Truth and Human Natur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8 (2) (2010), pp.225-250.

Meerbote, Ralf, “Kant’s Use of the Notions “Objective Reality” and “Objective Validity” ”, *Kant-Studien* 63 (1-4) (1972), pp. 51-58.

Abstract

Purposiveness of Nature as a
Transcendental Principle
: on the Introduction to *Critique of
Judgment*

Hyun-Dong, Hwang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Introduction to *Critique of Judgment*, Kant argues that the purposiveness of nature, which is the principle of our reflective judgment, is a transcendental principle, namely, a principle which is needed necessarily to form our empirical knowledge. In general, we consider empirical knowledge as acquired based on repeatability of natural appearances. But according to Kant, we cannot obtain any empirical knowledge without presupposing that nature itself has a systematicity exceeding such repeatability. That is, Kant's argument is that our empirical knowledge is formed only under the presupposition

that nature agrees with the purpose of our cognitive capacity, which is to understand nature systematically.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lucidate the meaning of this argument and to prove that this argument is plausible against critiques of many commentators.

According to the objective mentioned above, I reconstruct Kant's argument as follows. First, our empirical knowledge is accompanied by the conviction of judging subject that it is a correct statement on the object, and so, requires judging subject's effort to verify reasonably whether his judgment is a correct statement on the object or not. Second, our thinking activity which is performed as a reasonable verifying procedure required in the formation of empirical knowledge is exactly logical reflections performed at several levels to make logical representations such as concept, judgment, inference, and all sorts of reflective activities ultimately depend on reflective activity of systematizing through comparing whole of judgments.

Third, finally, judging subject can perform reflective activity of systematizing only if he presuppose that nature, which is the objective world for empirical knowledge, is organized according to his cognitive purpose to understand it systematically. While considering the nature as a chaotic collection, one cannot but regard the system of judgments as a arbitrary structure that cannot reflect the nature correctly, and thinking activity to make such a system as a worthless work. All of our reflective activity can be performed only under the presupposition that nature is composed as a system which agrees with the cognitive purpose of judging subject himself, and in this sense, the purposiveness of nature is a innate norm that makes our reflective activity in general possible.

In short, our empirical knowledge is formed based on several reflections, which are thinking activities performed as a procedure that judging subject fulfills to verifying reasonably his own judgment. And the presupposition of the purposiveness of nature is a transcendental

principle, that is, a principle a principle which is needed necessarily to form our empirical knowledge in the sense that it is a innate norm of these reflective activities in general. Kant, through showing that the purposiveness of nature is a transcendental principle, tries to prove that it is not a arbitrary belief introduced by individual temper or habit. Namely, the project of the Introduction to *Critique of Judgment* is to prove that we cannot but presuppose the nature as a system while we strive to understand it through logical forms like concept, judgment, inference, so such presupposition is a resonable belief that is based on our logical thinking capacity itself.

Keyword : Kant, Critique of Judgment, Purposiveness of Nature, Empirical Knowledge, Transcendental Principle

Student Number : 2010 - 22969